

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일경에 검속되었다. 그는 1944년 8월 1일 대판재판소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집필 : 전남대학교 사학과 교수 박재상

제4절 대한민국의 성립과 변란

1. 해방정국과 광양

해방의 날,
 서울 장안에 태극기가 물결쳤다.
 옥에 갇혔던 이들이 인력거로 트럭으로 풀려나올 제
 종로 인경은 목이 메어 울지를 못했다.
 아이들은 새해 입을 때때옷을 꺼내 입고
 어른들은 아무나 보고 인사를 하였다.
 서울 장안을 뒤덮은
 태극기 우리 기,
 소경들이 구경을 나왔다가
 서로 얼싸안고 울었다. <윤석중>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솨음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와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이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리까. <심훈, 1930>

아동문학가 윤석중(1911-)은 해방이 되자 우리 민족의 기쁨을 ‘서울

장안에 태극기가 물결쳤다'라고 표현하였다. 그에 앞서 일제강점기 저항문학의 대표적 문인이었던 심훈(1901-1932)은 민족해방을 위와 같이 간절히 열망하였다. 그는 비록 해방을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우리는 1945년 8월,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와주기만 한다면 기뻐서 죽는데 무슨 한이 남겠냐는 꿈에 그리던 해방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해방은 왔으나 독립은 오지 않았다는 인식이 김구를 비롯한 애국지사들의 고뇌에 찬 탄성에 금방 묻어났다. 1945년 5월 독일이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했고, 그해 8월 일본 역시 항복하였다.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을 비롯한 연합국의 협상에 따라 일본군의 무장해체를 위한 분계선으로써 38도선이 그어졌다.

일제 총독부는 조선에서의 일본인 보호와 치안권 확보를 위해 국내 민족지도자들과의 협상이 시급하였다.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의 인물로서 일제는 여운형·안재홍·송진우를 떠올렸다. 일제는 먼저 민족주의 우파의 대표적인 인물인 송진우와 접촉, 치안권 내지 행정권을 맡아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송진우는 총독부의 요청을 거절하였으며, 그와 교섭에 실패한 총독부는 중도좌파의 대표적인 인물인 여운형과 협상하였다. 총독부의 정무총감 엔도(遠藤)와 회담한 여운형은 치안을 담당하는 조건으로 5개항을 제시하였다. 즉, 조선의 정치범과 경제범의 즉시 석방, 3개월간의 식량 확보, 한국인의 치안유지와 정치활동의 불간섭, 청년과 학생의 훈련 간섭 금지, 노동자 농민의 건국사업 간섭 금지 등이었다.

위의 조건을 수락받은 여운형은 즉각 치안대를 조직하였다. 동시에 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건국준비위원회(이하 건준)의 조직사업에 착수하였다. 8월말까지 전국적으로 약 145개의 건준지부가 결성되었는데, 전남에는 광주를 비롯하여 전남동부지역에도 광양 등지에 설치되었다. 8월 25일 건준의 선언문에서 전 민족의 정치 사회적 기본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민주정권의 수립과 국내질서를 자주적으로 유지하며 대중생활의 확보를 추구한다고 표명하였다.



사진2-119 : 해방을 기뻐하는 광양군민들이(경모 사진집)

하지만 건준은 9월 6일 여운형·박헌영·허헌·정백 등에 의해 이른바 ‘인민공화국’ (이하 인공)으로 개편되었다. 즉, 8월말부터 9월초에 걸쳐 좌파 인사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지방에서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양상을 띠며 이루어졌다. 9월부터 남한에는 7개 도와 12개 시, 그리고 총 148개의 군 가운데 145개 군, 총 1,680개 면중 1,667개 면에 인민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전남에서도 2부(시) 21개 군(제주 포함)에서 결성되었다. 전남은 경상남도 다음으로 인민위원회의 활동이 활발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전라남도도 8월에 건준이 결성되어 얼마 후 인민위원회로 전환되면서 약 2개월 동안 치안유지와 실질적인 행정기관을 대행하였다. 즉, 1945년 10월말 초대 전라남도 미군정 지사 피그 대령이 제주도도 포함한 도내 일원에 정식으로 군정을 선포할 때까지 활동했던 것이다. 당시 전남건준은 서울의 중앙건준의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도민들의 자발적인 건국외지에 의해 이루어졌다. 전남건준은 두 차례에 걸쳐 개편을 거듭했는데, 제1차 결성식은 8월 17일에 광주극장에서 진행되었다. 위원장 최홍중, 부위원장 김시중 강해석, 총무부장 국기열, 치안부장 이덕우, 재무부장 고광표 등의 조직이 구성되었다.

전남건준은 결성식이 끝난 후 일본인 야기(八木) 도지사를 방문, 행정권의 인계와 정치범 석방을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이튿날 광주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약 1,400명의 정치범들이 석방되었다. 이들이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 건준활동을 개시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전남건준은 중앙의 정세 변화에 따라 한 차례의 개편과정을 거쳤다. 1945년 9월 8일 광주에서 각 시군단위에서 대표로 뽑힌 수백 명의 건준 위원들이 모인 가운데 개편대회를 열었다.¹⁾

이는 박헌영을 비롯한 좌파의 ‘인공’ 선언(9. 6)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개편과정에서 보수적인 성향의 인사들이 물러나고 진보적인 인물로 대체되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제2차 전남건준의 지도부는 위원장 박준규, 부위원장 국기열 강석봉, 재무부장 선태섭, 조직부장 장재성, 상업부장 조남용, 선전부장 조운, 학술부장 김범수, 치안부장 송어우 등이었다.

그러면 광양에서는 해방을 어떻게 맞이했는지 알아보자. 광양 건준은 해방된 지 닷새만에 건준이 결성된 것 같다.²⁾ 처음에 광양의 좌파와 우파는 각자 따로 모임을 가진 것으로 전해진다. 해방직후 광양경찰서 유치장에서 풀려난

1) 『광주전남현대사』 1, 실천문학사, 1991, 40쪽.

2) 광양 건준의 결성날짜는 자료마다 약간씩 다르게 나타난다. 즉, 『광양군지』에는 8월 17일, 『광주전남현대사』 1에는 8월 20일로 기록되어 있다. 정확한 날짜는 잘 알 수 없으나 8월 17일 해방축하군민대회를 개최하여 자치위원회를 조직한 다음 3일 후에 다시 건준으로 개편한 것으로 보인다(『광주전남현대사』 1, 58쪽).

노산(鰲山) 이은상(李殷相, 1903-1982)의 주도로 우파의 단체를 만들었으며, 좌파 역시 그러했던 것이다. 양측은 8월 17일 합동으로 광양서초등학교에서 해방축하군민대회를 열었다. 교정에 모인 2천여 명의 군민들이 일장기로 급조한 태극기를 들고 나와 감격의 눈물과 만세를 부르며 해방의 기쁨을 나누었다. 이날 조직된 ‘자치위원회’의 대회장(大會長)은 광양의 항일투사



사진2-120 : 광양경찰서 무덕정에서 열린 시국수습 군민회의. 왼쪽의 안경 낀 이가 노산 이은상선생.(1945. 8. 15일 오후 이경모 사진집)



사진2-121 : 광양군민대회장면(1945. 8. 17 이경모 사진집)

였던 김완근(金完根, 1875-1950)이 맡았다. 3일후 이 조직은 건준으로 전환되면서 위원장에 김완근, 부위원장 이은상·정진무, 상임위원 박순갑 외 17명, 총무 및 지방부장 박봉두, 민생부장 김석주, 민생부 차장 정귀석, 노동부장 이달주, 선전부장 김기선, 후생부장 정창욱, 문화부장 김덕배, 치안부장 정순화 등이 맡았다. 이들 중에는 자신도 모른 사이에 이름이 포함되었다고 말할 정도로 견고한 조직은 아니었다고 한다.³⁾ 그런 때문인지 얼마후 여러 조직으로 분리되었다.

이에 앞서 김석주·박순갑·정창욱 등이 광양경찰서를 접수하였다.⁴⁾ 이들은 8월 16일 자정무렵 일본측과 협상을 통해 일본인의 생명을 보호해준다는 조건으로 경찰서를 인수하였다. 이 과정에서 무기를 인계받았다는 점에서 이들이 ‘치안대’의 역할을 자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며칠 뒤 이들이 건준의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아 건준의 ‘치안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짐작된다.

광양건준은 광양읍사무소에 사무실을 두고 일인들로부터 행정기관을 접수하였다. 각 면단위의 건준 대표자들이 미군이 진주한 뒤 거의 면장으로 재임명된 것으로 보아 미군정과도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한 듯하다. 당시 광

3) 『광양군지』, 336-7쪽.

4) 『광양군지』, 336쪽.

5) 안중철 외 3인, 『근현대의 형성과 지역 사회운동』, 셋길, 1995, 193쪽.

6) 안중철 외, 앞의 책, 195쪽.

7) 『광주전남현대사』 1, 58쪽.

8) 『광주전남현대사』 1, 89쪽.

양건준의 위원장이었던 김완근은 광양읍의 토박이로서 70고령이었으며, 일제강점기에 조선공산당사건으로 수차례 투옥된 바 있었다. 그는 또한 해방직전에는 천도교 중심의 농민운동과 소작쟁의운동을 주도하였던 때문에 광양에서는 널리 알려진 항일투사였다.⁵⁾ 해방후에도 그는 좌익활동과 관련하여 미군정에 의해 구속된 바 있으며, 주로 민주주의민족전선의 전남민전 위원장으로 활약하였다. 그 후 좌익세력에 대한 탄압이 극심해지자 월북했으나, 6·25전쟁기에 고향에 내려와 은신해 있다가 경찰에 체포당한 후 행방불명되고 말았다.⁶⁾ 그리고 총무 및 지방부를 담당한 박봉두는 19세때 조선일보 기자를 지냈으며, ‘광양독서회’ 사건으로 투옥당한 바 있었다. 그는 해방후 광양지구 공산당 선전부장으로 교육사업에 전념한 인물이다.

광양의 타 지방에 비해 건준의 활동이 활발했기 때문에 박봉두와 정용재는 9월 6일 이른바 ‘인공’의 발족식에 참석할 만큼 열성을 보였다.⁷⁾ 이들이 참석하고 돌아온 이후에 광양건준은 다시 ‘광양인민위원회’로 개칭하여 활동을 계속하였다.

그런데 전라남도의 도인민위원회는 중앙 건준이 공식적으로 해체된 날보다 3일 늦은 10월 10일 출범하였다. 당시 도인민위원회 대회는 이익우의 사회로, 유혁이 임시의장으로 사회를 보며 국내외 정세에 대한 열띤 논쟁을 거쳤다. 당시 광양지역에서는 정용재·박봉두가 도인민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광양 인민위원회는 동부지역에서는 가장 늦게까지 왕성한 활동을 벌였다.⁸⁾ 더욱이 광양 인민위원회는 도의 지시를 받지 않고 거의 자치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미군정 당국은 파악하였다. 광양 인민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움직였던 인물은 건준 부위원장과 치안대장을 지냈던 정순화였다. 정순화는 김완근과 더불어 인민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업무를 수행했다. 정순화는 미군정 당국이 김석주를 광양군수로 임명했으나 실제적인 행정은 그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광양 인민위원회는 산하에 농민위원회와 노동조합을 두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당시 농민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진무, 부위원장 박영무, 간부는 정용재가 맡았다. 위원장 정진무는 일제 강점기에 농민운동을 주도했던 인물로 수차례 투옥된 바 있었다.

그밖에도 박봉두와 정용재는 주로 도 인민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박봉두는 11월 하순 서울의 천도교강당에서 열린 제1회 전국인민위원회 대표자대회에 참석하였다. 같이 참석했던 정용재는 이날 발언권을 얻어

‘인공’의 국가형태를 부정한 미군정의 명령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당시 그는 미군정의 인공해체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한편, 광양지역을 관할했던 미69군정중대는 광양 인민위원회를 해체하지는 않았다.⁹⁾ 그 이유는 잘 알 수 없으나, 미군정에 정면으로 대응하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46년 1월 미군정은 불법적인 적산관리와 공공기물 불법유용의 혐의를 씌워 김완근과 정순화를 구속하였다. 이후 다소 위축된 상태로 활동하였으나, 좌파의 주도권을 우파가 계승하지는 못하였다.

9) 『광주전남현대사』 1, 90쪽.

2. 대한민국의 수립과 제14연대 반란사건과 광양

미군정은 9월 8일 인천에 도착하여 이튿날 서울에 들어왔다. 미국은 즉각 군정을 선포하고서 서울·경기 지역을 시작으로 점령지역을 넓혀갔다. 11월 10일 제주를 끝으로 미군의 배치가 완료됨으로써 당시 각 지방에서 자치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던 건준이나 인민위원회 등과 잦은 마찰을 빚었다. 미군정은 주한미군사령관 아래에 군정장관·민정장관 그리고 도와 시·군 단위까지 조직을 두고서 통제권을 강화하였다. 특히, 미군정은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 일제 경찰을 거의 그대로 유지시켰으며, 경찰예비대로 조직된 조선경비대 역시 일본군과 만주군 경험자들을 대거 포진시켰다. 관료들의 충원 방식도 비슷하였다. 우선적으로 영어를 할 줄 아는 친미인사들이나 반공주의자들로서 주로 한민당계를 발탁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전라남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이와 같이 미군정의 조치는 새로운 민족국가 건설이라는 대중의 기대와는 크게 어긋나는 것이었다. 더욱이 45년말부터 시행된 미군정 당국의 미곡통제정책은 도시 서민들과 농민들로부터 큰 반발을 샀다. 이러한 과정에서 46년 후반에 발생한 ‘철도노동자파업사건’이나 ‘대구폭동’은 예견된 것이나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광양을 비롯한 전남동부지역은 비교적 조용하게 해방정국을 관망하는 편이었다.

그런데 45년말이후 신탁통치문제를 둘러싼 좌우익의 대립과 미소공동위원회의와 관련하여 미국과 소련의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었다. 나아가 남한에서는 단독정부의 수립 문제로 정국이 요동치고 있었다. 미국은 한반도



45년말부터 시행된 미군정 당국의 미곡통제정책은 도시 서민들과 농민들로부터 큰 반발을 샀다.

문제를 유엔에 상정하여 그들의 남북 총선거를 통한 통일방안을 가결시켰다. 그러나 소련의 거부권 행사와 북한의 반대로 말미암아 미국은 남한 단독 정부안을 추진하였다.

단정수립을 위한 5·10선거가 강행되자 김구와 김규식 등은 남북협상을 전개하여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한 최후의 담판을 시도하였다. 반면에, 이승만 등 단정론자들은 선거운동에 뛰어들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였다. 이에 맞서 좌파세력은 48년초부터 단독선거를 무산시키기 위해 이른바 ‘2·7투쟁’을 주도하였다. 또한 제주도에서는 ‘4·3사건’이 일어나 좌우익의 대립이 격화됨으로써 무장폭동이 더욱 격렬해졌다. 결국, 수많은 피를 흘린 끝에 1948년 7월 국회에서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됨으로써 대한민국의 첫걸음이 시작되었다.

한편, 단선반대투쟁이 한창이던 1948년 5월 광주의 4연대 1개 대대를 기반으로 여수에 제14연대가 창설되었다. 1946년 2월, 미군정은 조선경비대총사령부를 설치하고서 1948년 중반까지 전국에 15개 연대를 창설하였다.¹⁰⁾ 도청소재지인 광주에는 1946년 2월에 4연대, 여수에는 4연대에서 파견한 장병들에 의해 14연대가 창설되었다(1948. 5. 4). 그런데 14연대에 파견된 창설요원들은 여순사건의 주모자였던 연대 인사계 지창수 상사를 비롯하여, 김지회·홍순석 중위 등 좌익계가 적지 않았다.¹¹⁾

이들은 당시 남로당의 지침에 따라 좌익성향의 병사들을 적극 모병함으로써 14연대는 좌익계가 절반이나 되었다고 한다. 더욱이 모병에 응하는 이들 중에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여수의 14연대 사병들은 종종 경찰과 충돌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1948년 9월 구례사건이 터진 것이다. 당시 군인들은 ‘노란등이(노랑이)’, 경찰들은 ‘검은등이(검둥이)’라 불렀는데, 상대방의 제복 색깔에 빗대어 그렇게 부른 것이다.¹²⁾ 상대방을 비하하는 명칭만 보더라도 군경간의 갈등이 내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수 제14연대는 좌파의 은둔처인 동시에 반경사상이 높았다.

그런데 제14연대에서 활동중인 좌익장병들은 자신들의 신변이 노출될까봐 걱정이 많았다. 제주에서 발생한 4·3사건으로 인하여 군부내의 숙군작업이 진행중이어서 자신들의 좌익활동이 노출될 위기에 처하였다. 더욱이 여순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인 10월초 민족주의자였던 연대장 오동기 소령이 이른바 ‘혁명의용군사건’으로 구속되자 이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

10) 황남준, 「전남지방 정치와 여순사건」, 『解放前後史의 認識』 3, 한길사, 1987, 416-7쪽.

11) 지창수 상사 등 하사관그룹은 전남도당에서 침투시켰으며, 김지회·홍순석 등은 좌익사상에 가장 많이 물든 조선경비사관학교 3기 출신으로서 남로당 중앙과 연결된 인물이었다(김점곤, 『한국전쟁과 남로당전략』, 박영사, 1973 ; 1983, 185-187쪽, 김남식, 『남로당연구』 1, 1975 ; 돌베개, 1984, 380-381쪽, 한용원, 『창군』, 박영사, 1984, 86쪽, 스칼라피노·이정식, 한홍구 역, 『한국공산주의 운동사』 2, 돌베개, 1986, 394-5쪽의 각주 108, 전남일보, 『광주전남현대사』 2, 실천문화사, 1990, 102쪽 참조).

12) 김계유, 『여수여천발전사』, 1988, 317쪽.

만 갔다.

며칠후인 10월 15일 14연대에 제주도로 1개 대대를 파견하라는 전보통지문이 하달되었다. 10월 19일 20시를 기해 제주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1개 대대를 출동시키라는 내용이였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남로당 전남도당의 제14연대 조직책임던 지창수 상사를 통해 좌익계 동료들에게 알려졌다. 지창수 상사를 중심으로 연대 내의 좌익과 여수읍내 좌익세력이 함께 대책을 숙의하였다.

당시 무장봉기의 주동한 14연대 하사관그룹은 동족상잔이나 반란이나에 대한 향후의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³⁾ 이 과정에서 제주도 현지에서의 반란과 연대 내에서의 반란, 선상반란후 복상 등 세 가지 방안 중에서 세번째 안으로 잠정 결정되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연대 내에서의 반란으로 갑자기 변경되었는데, 그것은 선상반란의 정보가 누설되어 승선하면 곧 체포될 것을 우려하여 계획이 변경되었다는 것이다.

제주도 출동명령을 받은 14연대의 지휘부는 좌익계 사병들을 골라 제주도로 파견하려 했다.¹⁴⁾ 14연대의 지휘부는 숙군작업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말썽의 소지가 많은 좌익계 사병들을 제주도에 파견시키려는 계획을 추진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정은 좌익계 사병의 반발로 이어졌을 것이며, 사병조직을 관할하는 지창수 상사이하 좌익계 하사관들이 자구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반란으로 치닫게 된 것이 아닐까 한다.

더욱이 제주도에서 활동중인 11연대장 박진경 중령의 피살사건을 계기로 광주 5여단 예하의 부대들은 숙군작업에 휘말려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14연대 내부의 좌익계 장교와 사병들은 불안한 상태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와중에 제주파병 명령이 내려지자, 좌익계 하사관들은 좌익토착세력과 연계하여 봉기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해 14연대 내의 좌익계 사병들은 동족상잔을 할 수 없다는 자주적 입장과 숙군작업의 진행됨으로써 자신들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자 선상반란을 도모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선상에서 반란을 일으켜 북한으로 가기로 잠정 결정을 하고서 도당에 문의하려 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결국 이들은 남로당 지도부의 지시없이 자체적으로 출동 당일 현지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지창수 상사 등 좌익계 핵심세력 40여 명은 무기고와 탄약고를 점령한 다음 비상나팔을 불어 사병들을 불러 모았다. 무장을 갖춘 사병들 앞에 나타난 지창수 상사는 “지금 경찰이 쳐들어온다. 경찰을 타도

13) 李孝春, 「麗順軍亂研究-그 배경과 展開過程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28쪽; 안종철, 『순천시사』 정치·사회편, 754-755쪽 참조.

14) 이 점은 김석학·임종명의 글에서도, “제주도출동은 제1대대로 정했으나 2·3대대의 소위 문제아들을 재빨리 1대대로 배속시켰다”라고 쓴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광복30년』 2, 전남일보사, 1975, 32쪽).

15) 白善燁, 『實錄 智異山』, 고려원, 1992, 153쪽.

하자. 우리는 동족상잔의 제주출동을 반대한다. 우리는 조국의 염원인 남북 통일을 원한다”고 선동하자¹⁵⁾ 핵심세력들이 적극적으로 동조하였다. 이를 반대한 장교와 하사관들은 즉시 사살되었다. 이들은 무장폭동을 일으켜 여수읍 점령을 시작으로 순식간에 순천 별교 광양 등 전남 동부지역을 장악하였다.

이들의 무장폭동은 14연대내의 좌익계 장교들과도 상의하거나 연계없이 일어났다. 당시 남로당은 중앙에서 장교를 관할하고 하사관이하 사병들은 도당에서 관리하였다. 그리하여 서로 신분이 노출되지 않아 폭동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남로당계의 장교들도 희생되었다. 다만, 김지회는 먼저 남로당임을 밝힌 후에 살아날 수 있었고, 나중에 빨치산 사령관으로 활동한 홍순석은 순천과견중대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튿날 합류하였다.

이들은 20일 새벽 여수를 점령한 후 1개 대대병력을 제외한 2개 대대병력을 기차와 트럭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순천으로 이동시켰다. 순천에서 이들은 홍순석이 지휘하는 중대와 합류하여 경찰과 치열한 격전을 치른 끝에 20일 오후 순천읍을 점령하였다. 그 후 이들은 3개 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해 부대를 삼분하여 이동했다. 한부대는 별교를 거쳐 보성·화순·광주로 나아가기로 하고, 다른 1개 부대는 구례를 거쳐 곡성·남원으로 갈 예정이었으며, 또다른 부대는 광양을 거쳐 하동 방향으로 진출하였다.¹⁶⁾ 이들은 상황에 따라 도청소재지인 광주나 전주로 나아갈 의도였으나 그들의 주된 목표는 구례 등을 거쳐 지리산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따라서 보성으로 진출한 부대는 14연대의 주력을 왼편에서 보호하는 한편, 광주로의 통로를 개척하려는 의도였고, 광양으로 진출한 것도 반군의 오른편을 보호하면서 백운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들어가는 통로를 확보하기 위함이었다.¹⁷⁾ 세방면으로 진출한 반군은 대부분 진압군의 적극적 방어에 막혀 진로를 차단당했다. 그러자 이들은 병력을 소규모로 분산시켜 지리산으로 이동하였다.

당시 산악지대로의 이동은 지리산에서 빨치산투쟁을 준비하던 남로당의 이현상의 지시였던 것으로 전해진다.¹⁸⁾ 이현상은 순천에 들어가 홍순석을 총사령관, 김지회를 부사령관으로 반군의 지휘체계를 갖추게 한 다음, 신속히 산악지역으로 이동하여 제2전선을 형성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그런데 여순사건이 발생하자 해당 지역에서는 토착좌익은 물론이고 일반 주민들 중에서도 반군에 동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당국과 미군정은 신속한 진압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설정하였

16) 『광주전남현대사』 2, 169쪽.

17) 위의 책, 170쪽.

18) 백선엽, 앞의 책, 169쪽.

다. 그리하여 정부는 10월 21일에 반군도벌사령부를 설치한 다음, 계엄령을 선포¹⁹⁾하고서 8개 연대에서 10개 대대를 차출, 여순지구에 투입하였다. 아울러 기갑연대와 항공대·군함 등을 동원하여 육·해·공 합동작전으로 10월 27일 반군의 마지막 보루였던 여수를 탈환했던 것이다.

그러나 진압작전은 미군정 책임자도 인정했듯이 지나친 속도전이었다.²⁰⁾ 정부당국은 미군정 군사고문단의 의도대로 4F전술로 진압작전을 전개하였다. 즉, “찾아서, 고정시킨 후, 싸워서, 끝낸다(Finding, Fixing, Fighting, Finishing)”는 계획을 수립하여 진압작전을 펼쳤던 것이다. 그 결과 여수와 순천의 탈환에 집착한 나머지 반군들이 백운산과 지리산으로 스며들 퇴로를 열어줌으로써 빨치산의 진압에 오랜 골칫거리를 만들었던 것이다.

제14연대 반란사건이 발발하자, 당시 광양경찰서의 경우에도 1개 중대 경찰병력을 차출하여 순천으로 출동시켰다. 그런데 차출된 경찰병력은 순천으로 진입하기도 전에 반군의 기습을 받아 3-4명의 희생자를 낸 채 광양으로 퇴각하고 말았다.²¹⁾ 당시 광양경찰은 좌익혐의자로 체포하여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어둔 사람들을 총살하고 후퇴하였다.²²⁾ 이 과정만 보더라도 무고하게 죽은 경우가 많았으리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순사건 진압작전은 미군의 작전 지휘권과 군수물자의 지원아래 이루어졌는데, 진압군은 민원(民怨)의 대상이 되었다. 진압군이 민간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진압대상으로 취급함으로써 무고한 양민들의 희생이 많아졌기 때문이다.²³⁾ 탈환된 지역에서는 경찰·우익인사·청년단원 등이 “복수(復讐)와 사감(私感)” 등과 주관적 기준에 의해 이른바 「부역자」를 색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손가락총”이라는 말이 유행하였으며 개인적 감정이나 증상모략이 난무했었다.²⁴⁾ 이로 말미암아 무고한 희생자가 더욱 많아졌고,²⁵⁾ 그 희생의 주체가 누구인지 애매한 경우가 많았음은 물론이다.

전라남도 후생국에서 발표한 피해상황이 당시의 상황을 짐작케 해준다.²⁶⁾ 즉 11월 1일 현재 인명피해중 사망 2,533명, 행방불명 4,325명, 가옥

19) 계엄령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전남지역에 대한 계엄령이 국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헌 시비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국회사무처, 『제1회 국회속기록』 제92호, 1948년 10월 30일자, 706쪽).

20) 짐 하우스만·정일화 공저, 『한국 대통령을 움직인 美軍 대위』, 한국문원, 1995, 179쪽.

21) 『광양군지』, 338-9쪽.

22) 이경모, 『격동기의 현장』, 눈빛, 1991.

23) 이효춘, 앞의 논문, 33쪽.



사진2-122 : 경찰은 제14연대 반란사건이 발발하자 경찰유치장에 가두어둔 좌익 혐의자를 덕례리 주량마을 앞에서 총살하고 후퇴하였다(1948, 10 이경모사진집)

24) 『보성군사』, 1995, 414쪽 ; 이효춘, 앞의 논문, 34쪽.

25) 당시의 참상을 목격한 소설가 鄭飛石은 우리 민족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며 절망감을 토로했다. 그는 당시 문교부파견 현지 조사반장으로 내려와 이 지역의 비참한 상황을 글로 발표한 바 있다(『麗順落穂』 1-3, 1948. 11. 20 ; 『여수문화』 5, 여수문화원, 1990, 32쪽).

26) 『호남신문』 1948년 11월 5일자 참조.

27) 『대동신문』 1948년 11월 9일자 ; 김점곤, 앞의 책, 204쪽에서 재인용.

소실 1,538호라는 것이다.

아래의 <표2-39>에서 알 수 있듯이, 위의 통계와 약간의 차이가 없지는 않으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도 있다. 다음의 자료가 그것에 해당된다.

〈표2-39〉 여순사건시 인명 및 가옥 피해상황 ²⁷⁾							
구분 지역	사망	중상	경상	행방불명	全 潰	半 潰	손해액(원)
소계	2,533	883	524	833			416,960,000
곡성	6	2			4	6	4,500,000
구례	30	50	100		36		14,600,000
광양	57						5,000,000
여수	1,200	800	250		燒失 1,538	198	377,360,000
순천	1,134		103	818	13		13,500,000
고흥	26		41	8			
보성	80	31	30	7	3	2	2,000,000



사진2-123 : 제14연대 반란군에 대한 토벌작전을 벌이고 있는 진압군(1948. 11. 전남 광양 백운산, 이경모사진집)



사진2-124 : 반란군으로 공비가 되어 붙들려온 동료전우들을 진압군이 감시하고 있음(1948. 11. 전남 광양 백운산, 이경모사진집)

28) 김점곤, 앞의 책, 204쪽.

29) 국회사무처, 『제1회 국회 속기록』 제124호, 1246-1247쪽.

30) 『駐韓美軍週刊情報要約』 5,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0, 659쪽.

당시 여러 기관에서 발표한 피해상황을 잘 정리한 연구도 있는데, 미국인과 미군에게는 봉기세력의 적대행위나 피해가 전혀 없었다고 한다.²⁸⁾ 그리고 정부에서 국회에 보고한 자료²⁹⁾에 의하면, 전투회수 89회, 출동한 부대 규모는 육군 4,872명과 해군 2,942명, 반군의 병력은 약 3,700명이라 하였다. 국군의 전사 142명, 부상 189명, 행방불명 16명인데 반하여, 반군은 遺棄 시체 826구, 포로 2,856명으로 보고하였다.

이처럼 자료에 따라 피해상황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G-2보고서에서도 당시에 발표된 사상자의 규모가 매우 불완전하다고 보았으며,³⁰⁾ 좌익측의 통계는 발표된 바 없으므로 당시에 정부와 군 당국에

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수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재산상의 피해는 통계가 더욱 불완전한 편인데, 40억여 원에서 약 100억원으로 집계된 경우도 있다.³¹⁾ 특히 여수지역은 인적·물적 피해가 극심했으며, 두 차례의 화재사건에 의해 피해액이 급증하였다.

순천의 경우에는 물적 피해보다는 인명피해가 컸었다. 반군의 점령기간이 2-3일에 불과하였지만 희생자가 무려 500-1,000명 선으로 파악된 점³²⁾에서 그러하다. 이 지역의 경우 좌우익 학생단체 사이에도 대립이 축적되어왔던 것 같다. 그 결과 반군이 순천을 점령한 후 좌익학생들은 우익학생단체를 주도했던 인물들에게 보복을 가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손양원 목사의 두 아들이라 할 수 있다.³³⁾ 당시의 참혹한 현지 상황을 어느 기자는 “인심좋은 순천은 역천(逆天)되고, 산고수려하다던 여수는 악수(惡水)로 변했다”라고 썼다.

한편, 순천을 점령한 14연대 반군의 일부는 국군의 순천공격이 본격화되던 22일경 광양으로 이동하여 광양읍을 점령하여 하룻동안 머문 다음 백운산으로 들어갔다.³⁴⁾ 이후 광양지역은 진압군과 반군에게 이중의 고통을 당했다. 이 과정에서 광양지역의 좌익세력은 세력을 결집하다가 진압군의 탈환이 곧바로 이어짐으로써 처참한 피해를 당했다.

당시 광양읍을 탈환하기 위해 2개의 부대가 진입하였다. 최남근 중령이 지휘하는 마산주둔의 제15연대와 백인엽 소령이 이끌던 군산주둔의 제12연대였다. 15연대는 하동에서 섬진강을 건너 광양읍 송치(솔티재)에 다다랐을 때 반군의 공격을 받아 최남근 연대장 등이 생포되고 말았다.³⁵⁾ 반군은 이들을 광양경찰서로 데려갔다가 다시 옥룡면으로 이동하여 백운암으로 끌고 갔다. 백운암에서 진압군 지휘부는 취조를 받은 후 다시 섬진강을 건너 지리산 문수골로 끌려갔다. 이곳에서 반군이 진압군의 공격을 받는 틈을 타 최남근 등은 빠져 나올 수 있었다. 15연대의 광양 진입이 실패로 돌아가자, 송호성 총사령관은 12연대를 투입했다.³⁶⁾ 이들은 광양으로 진입하다가 반군으로 착각한 15연대 병력과 충돌하여 10여 명의 부상자를 내기도 하였다.³⁷⁾

그리고 10월 23일 새벽 광양에 경찰부대가 파견되었다. 당시 제4연대 2개 소대를 이끌고 온 문중섭 소위는 군청과 경찰서를 점령한 좌익세력을 습격하여 70여 명을 사살하고 10여 명의 좌익인사를 검거하여 총살하였다.³⁸⁾ 당시 문소위는 15세 이상의 주민들을 모두 집합시켜 자신들이 인민군인 양 행동하며 좌익과 부역자를 색출하여 처형하였다.³⁹⁾ 이러한 상황은

31) 『호남신문』 1948년 11월 5일자 같은 신문 1949년 2월 8일자 참조 ; 김정근, 앞의 책, 204쪽.

32) 『주한미군주간정보요약』 5, 640쪽 ;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 458쪽 ; 존 메릴, 신성환 역, 앞의 책, 205쪽 ; 유건호, 『여순반란사건』, 『전환기의 내막』, 153쪽.

33) 손동희,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 아가페출판사, 1994 ; 1998 개정판, 192-214쪽 ; 이효춘, 앞의 논문, 40쪽의 각주 110 참조.

34) 『광주전남현대사』 2, 173쪽.

35) 백선엽, 앞의 책, 181-2쪽.

36) 백선엽, 앞의 책, 184쪽.

37) 『광양군지』, 339쪽.

38) 『광양군지』, 339쪽과 『광주전남현대사』 2, 174쪽.

39) 백선엽, 『실록 지리산』, 176쪽.

소규모 부대가 진입하는 마을이면 어디서나 예외없이 빗어짐으로써 무고한 주민들도 희생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 외에도 백운산을 끼고 있는 봉강·옥룡·옥곡·진상면 일대의 상당수 주민들은 억울하게 희생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광양 경찰은 섬진강변 신원리까지 퇴각하여 사태를 관망하다가 진압군이 광양읍을 탈환하자 광양읍으로 돌아와 진압작전에 참여하게 되었다.

1천여 명의 반군은 지리산으로 들어가 기존의 지방 유격대와 합류하여 대규모 유격대를 구성하였다. 이들은 광양 구례 곡성 하동 등을 무대로 활동함으로써 남한 내의 빨치산 활동이 본격화되었다.⁴⁰⁾ 이로써 지리산과 백운산 주변은 남로당의 유격투쟁의 강력한 근거지로 떠올랐다. 남로당 지도부는 오대산과 태백산 그리고 지리산 등 산악지대를 거점으로 제2전선을 형성하여 유격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였다. 1949년 중반 이들은 3개 병단으로 편성하여 인민유격대를 표방하였다. 오대산지구는 제1병단, 지리산지구는 제2병단, 태백산지구는 제3병단이라 하였다.

지리산 일대의 제2병단은 사령관 이현상이 지휘하는 총사령부 밑에 제5-9연대 등 5개 연대를 두었다.⁴¹⁾ 그 중 제7연대(연대장 朴鍾夏)는 백운산에 사령부를 두고서 광양과 하동, 그리고 구례·순천·곡성 일부 지역을 관장하였다. 당시 남로당 서울 지도부는 모든 당조직을 군사조직으로 개편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전남 도당 역시 대부분의 당원을 입산시켰다. 직업적 유격대가 크게 증가하자 보급투쟁이 가장 큰 문제로 떠올랐다. 더욱이 겨울이 닥치자 무장유격대의 활동이 매우 불리하였다. 이들은 소규모로 부대를 분산시켜 피해를 극소화했지만 호남지구 유격대 사령관 최현은 1949년 10월 사살당했다.

최현의 뒤를 이어 전남도당 부위원장 김선우가 사령관을 맡았다. 김선우(1918-1954)는 보성 웅치출신으로 가난한 농민의 아들이었다.⁴²⁾ 그는 일제강점기에 공산청년회의 활동을 하다가 연희전문학교를 중퇴하였다. 그는 평양에 있는 일본 병기제조장에서 일하며 좌익활동을 꾸준히 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해방을 전후하여 경기도 인천을 중심으로 활동하다가 1949년 초 전남도당이 긴급비상체제로 운영되고 있을 때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 전남으로 내려왔다. 그는 남로당 전남 도당 부위원장으로 호남지구 유격대 사령관을 겸하였다.

당시 전남 유격대 조직은 최고지휘부로 유격대 총사령부가 있고, 그 아래

40) 백선엽, 앞의 책, 187쪽.

41) 이태, 『남부군』, 두레, 1988 ; 1993년 합본판, 255쪽.

42) 안종철 외 3인, 『근현대의 형성과 지역 사회운동』, 셋길, 1995, 248쪽.

에 하순 백아산지구(사령관 김용길), 장성 노령지구(김병익), 영광 불갑지구(박정현), 장흥 유치지구(윤기남), 보성지구(김종채) 등 5개 지구사령부가 있었다.⁴³⁾ 이 밖에도 지리산의 제2병단의 지휘를 받는 광양·구례·곡성 등지에서 주로 활동하는 백운산특각(박종하)이 있었다. 김선우는 전남도당을 장흥 유치에 두고 있다가 겨울이 닥치자 광양 백운산으로 도당을 옮겨 6·25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활동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군과 경찰력을 동원하여 강력한 진압작전을 전개하였다. 정부는 1949년 3월에 호남지구전투사령부(사령관 元容德준장) 외에 지리산지구 전투사령부(육군참모차장 丁一權준장)를 병행 편성하여 진압의 고삐를 더욱 당겼다. 1949년 4월, 지리산 뱀사골 반선 마을에서 여순사건이후 빨치산을 지휘해온 김지회·홍순석 등이 사살되면서 지리산 중심의 유격대활동은 크게 약화되었다. 당시 진압군경은 장축전술이라 하여 유격대를 발견하면 끝까지 추적하여 섬멸하는 작전을 구사하였다.⁴⁴⁾ 또한 진압군은 각각의 유격대를 고립시키는 포위전술을 전개하는 한편, 각 지구별 각개격파 전술을 수시로 실시함으로써 유격대의 전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진압군경은 주민들을 강제로 소개시킴으로써 정든 집과 가재도구를 순식간에 잃고 떠돌아야 했다. 광양의 경우에 진압작전 기간에 약 1,700호 총 9,300여 명이 집을 잃었다.⁴⁵⁾ 대대로 우거진 산림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었고, 아름다운 전통사찰을 비롯한 귀중한 문화재 등이 한줄기 연기로 사라졌다. 이처럼 제14연대 반란사건은 전남 동부지역에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고 6·25전쟁이 끝날 무렵에야 종식되었다.

43) 안중철 외 4인, 앞의 책, 250쪽.

44) 『광주전남현대사』 2, 192쪽.

45) 『광주전남현대사』 2, 193쪽.

제14연대 반란사건에 대한 구술 ①

- 구술일시 : 2005. 8. 1. 17:30~19:20
- 구술장소 : 광양시 광양읍 도월리 도청마을(구술자의 임시거소)
- 구술자 : 주종문(朱宗文, 1930년생)
- 구술자 약력 : 광양읍 도청마을 출생, 1948년 제14연대 반란사건시 제일 먼저 반란군으로 광양에 입성한 사람으로 알려짐.
- 면담자 : 광양시지편찬위원회 상임위원 김광호

*본 원고는 집필위원 원고와는 별도로 광양시지편찬위원회에서 조사·계재한 것임

- 면담자 : 이렇게 직접 뵈오니 건강하십니까. 이제 세상이 많이 달라졌

습니다. 어르신께서 TV나 신문을 보고 잘 아시겠지만 남과 북이 서로 마주앉아 웃는 얼굴로 대화도 하고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서로 오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봐 사전에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뽀뽀 된 것은 우리의 아픈 과거를 살아계실 때 단지 기록으로 남겨두고자 한 것 뿐입니다.

- 구술자: 나 개인적으로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너무 기구한 운명이고 이렇게 살아있어 말하는 것이 다행스런 일인지도 모르지. 그런데 딱 한번만 말할 거야. 나는 요밑에 배냇거리(도청마을→광양만쪽)에서 태어났으며 6세때 아버지는 죽고 옛날 어머니가 이곳 배냇거리에서 술장사도 하며 이곳 선창에서 거래되는 물품의 중개상인 역할을 했지, 또 나는 그 당시 사곡간이학교를 다닌 것이 나의 학력 전부야. 나이 18살 때 지원병으로 제14연대에 소속되어 근무하다가 전남 보성 발전소의 경비 임무를 띠고 전출되어 한 1년쯤 있다가 다시 여수14연대로 복귀했지.
- 면담자: 다시 14연대 복귀당시 그곳 분위기는 어떠했는가요?
- 구술자: 한 말로 어수선했어, 그리고 나는 당시 나이 19살이라 속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어. 그러나 소문이 제주도에서 엄청난 폭동이 일어났는데 우리 연대가 그곳에 진압하러 간다고 했고, 가면 다 죽는다고 소문이 짹 돌았어. 내일 간다면 저녁에 일이 벌어진 거야. 막사안에 있으니깐 밖에서 총소리가 났어, 그런데 군대 질서가 엉망이 되어 총소리를 듣고 막사 밖으로 나온 사람도 있고, 막사에 그대로 있는 사람도 있었는데, 조금 있으니 지휘자들이 와서 탄창고와 식품창고에 가서 식량과 탄약을 타라고 외쳐댔어. 그래서 탄약고에 가니 탄약을 많이 꺼내 놓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탄알을 무겁게 몸에 지녔는데 나는 허리띠에 80발, 어깨띠에 80발 걸머지고 M1총을 메고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순천으로 가는 기차를 타러 여수역에 가보니 역 앞에 순경들 시체가 뒹굴고 있었어.
- 면담자: 순천에 와서 어떻게 되었나요?
- 구술자: 영겁결에 순천역에 떨어졌는데 순천역 삼거리 근방에서 먼저

츄력으로 온 제14연대 군인들과 순천 경찰들 사이에 전투가 끝나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우리 부대는 죽도봉으로 올라갔는데, 아무런 지시가 없어 흩어져 있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러다간 안되겠다 싶어 집으로 갈려고 결심하고 몰래 빠져 나와 큰길을 피해 동주마을 인덕저수지 쪽으로 돌아 셋길로 오는데 멀리서 보니 순경 5~6명이 마로산성쪽으로 가는 것을 보고 숨어서 도청에 있는 우리집으로 돌아왔어.

- 면담자: 당시 반란군으로 광양에 제일 먼저 입성하였다고 들었는데요.
- 구술자: 그게, 이야기하자면 집에 온지 1시간쯤 지나서 같은 마을 좌익 분자 김○○씨가 찾아와서 광양은 이제 우리세상이니 시내로 들어가자고 줄라대서 같이 화신광장에 가보니 소위 폭도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 그곳 대장격인 사람이 나를 연단에 세우면서 한마디만 하고 공포를 쏘라고 해서 시키는대로 했지. 그 당시 분위기로 보아 그 사람들의 눈에 벗어나면 큰일나것드라고.
- 면담자: 무슨 말을 했는데요?
- 구술자: 「군인들이 인민군을 돕고 있다」는 말이며, 그러다보니 젊은 기분에 기세가 당당했어. 그 뒤 이틀인가 지냈는데 광주, 마산 등지에서 우리를 치려는 국군부대가 밀려와서 대부분 백운산으로 숨어들었지. 그런데 나는 백운산으로 안가고 집으로 왔어, 집에 있는 조그마한 농작이 들어갈만큼 채밭언덕에 구덕을 파고 그 농작을 밀어넣고 내가 그 속에 들어가 약 15개월 동안 살았어. 그동안 나 때문에 집안꼴이 말이 아니었어, 경찰서에서는 나를 찾아 내라고 혈안이 되었는데 그 중 형님 중 한 분은 나를 찾아내라고 유치장에 잡혀 들어가 심하게 두들겨 맞았고, 결국은 대전형무소로 보내졌는데 1·4후퇴때 사상범으로 몰려 사살당했어요.
- 면담자: 참 안되었습시다. 그러면 15개월 동안 숨어있다가 발각이 되었나요.
- 구술자: 우리집에서 가까운 친척에게 내가 죽지 않고 이곳에 숨어있다고 한 말이 화근이 되어 결국은 사곡리 점동 거주 하○○씨가 날 데리러 왔는데 그 분은 자수한 몸으로 경찰서에 협조를 해 주고 있었어. 경찰서에 불리어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나

의 M1총이 녹슬어 있는 것을 보고 내 말이 진실임을 알고 경찰서 산하 사곡분소에서 근무하게 되었지.

- 면담자 : 그 후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 구술자 : 여기서부터 내 인생은 또 혼란속에 빠져들어간 거야. 몇 개월 후에 6·25동란이 터졌는데 그러다보니 경찰서에서 나의 과거 경력을 문제삼는 눈치였어. 아차하면 내가 소리없이 죽게 되었어, 그래서 백운산으로 숨어들었지. 백운산 역불봉 밑에서 공비노릇을 하다가 이동하여 화순 백아산 공비로 있었는데 그곳 지서에 자수를 했어. 그 당시는 자수하라는 뼈라를 믿을 수 없었어. 대개 죽임을 당했거든. 그래서 나름대로 정보를 입수하여 자수해도 안전한 시기를 이용하여 자수를 했어. 자수하고 곧바로 그곳 지서에서 근무하다 집에 간다고 하니깐 허락해 주어 고향집으로 왔지. 그런데 집에 와 보니 이웃이나 사회의 눈이 안 좋았어. 그래서 국군에 정식으로 지원 입대하여 수송병으로 약 5년 근무하다 제대했어. 그 사연을 길게 이야기하자면 한정없어.
- 면담자 : 참 기구하십니다. 제대증 가지고 계시지요?
- 구술자 : 이게 참전용사증이야. 그리고 매월 국가로부터 6만원씩 받고 있어.
- 면담자 : 참전용사증이군요, 어려운 면담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4연대 반란사건에 대한 구술 ②

- 구술일시 : 2005. 8. 2. 09:00~10:25
- 구술장소 : 광양시 다압면 금천리 염창마을. 도로변 정자
- 구술자 : 정술(鄭術 · 1937년생)
- 구술자 약력 : 다압면 염창마을 출생, 현재까지 이곳에서 거주. 경남 하동고등학교를 중퇴하고 1970~'80년대 이장 · 다압면사무소에서 근무한 바 있으며 평소 이곳 마을 역사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 면담자 : 광양시지편찬위원회 상임위원 김광호

※본 원고는 집필위원 원고와는 별도로 광양시지편찬위원회에서 조사·게재한 것임

- 면담자: 앞서 두 번을 만나 뵈었는데 그 동안 건강해지셨습니다. 제 14 연대 반란사건 이전의 마을역사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구술자: 염창마을은 아시다시피 해방전에는 김해김씨들이 권세를 누리고 살았는데 감호정이란 건물은 개화기 이후에 김해김씨 가문에서 지은 건물인데 광양·구례·곡성·하동·진주 등지의 한문학자들이 이곳에 모여 풍류를 읊은 곳으로 유명하며, 광양출신 황매천 선생이 구례 있을 때 이곳에 자주 오셨고, 그 분이 감호정 중수기를 직접 썼거든. 해방을 전후해서 김을수, 김갑수씨 등이 사회주의 사상에 젖은 인물이 되었는데, 이곳 마을 비극은 여기서부터 출발한 것이여.
- 면담자: 그러면 제14연대 반란사건으로 인한 백운산 공비와 연관이 있게 됩니까?
- 구술자: 반란군들이 백운산으로 숨어들어가니깐 이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산으로 들어간 거지. 당시 염창마을은 약60세대인데 20세대 쯤 산으로 들어갔다고 전해요,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낮에는 군인과 경찰들이 와서 산으로 들어간 사람들을 찾아내라고 몽둥이로 두들겨패는 거지. 저녁에는 산사람들이 내려와서 양식과 가축, 반찬거리까지 내놓으라고 해서 괴롭혔어요. 그 래 결국은 몽둥이로 맞아 죽느니 차라리 산으로 들어가 살자 해서 남은 사람들도 점차 식구대로 산으로 들어가게 되었지. 그 당시 산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공비 토벌시 다 죽었어. 현재는 그전에 이 마을에 살던 사람도 거의 모두 타지로 뿔뿔히 흩어지고 3~4세대 가구만 남아 살고 있어
- 면담자: 그때 피해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 구술자: 모두 이야기 할 수는 없고 두 가지만 하겠어요, 그 당시 이장이 참 고생하다 죽임을 당했는데 아무 죄도 없는 주민들을 경찰서나 군부대에서 모질게 구타하면 중간에 들어서서 주민을 위해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백운산 공비들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도망가고 남긴 자리에서 마을에서 내려와 가져간 물품명세서가 발견된 거야. 그런데 그것이 이장이 건네준 물품명세서예요. 결국 이장은 다압 신원지서에 끌려가 대장으로 찢려 죽임을 당했지. 또 한번은 섬진강 건너 경남 하

동에서 군인들이 와서 마을 주민들을 20여명 섬진강변으로 끌고가 약 10일간 모질게 구타하였는데 이 소식을 알고 지방 유지들이 가서 죄없는 사람들을 죽이지 말라고 간곡히 이야기 하여 풀려 나왔는데 머리가 터진 사람, 다리가 불구가 된 사람들 등 내가 보았는데 처참했어요. 이 마을은 너무 한이 서린 고장이예요.

- 면담자 : 6·25 동란시에는 어떠했습니까?
- 구술자 : 6·25 동란시 광양지방이 2개월여 동안 공산치하에 있었는데 그 당시 광양군당 인민위원장이 김을수씨예요. 다시 우리 군인들이 수복하자 이 마을은 완전 소개되었어. 금천리 전체가 모두 집을 비우고 다사마을로 옮겨져. 국민학교도 완전 비웠지. 그리고 낮에는 농사지을려고 걸어서 이곳 마을에 와서 대충해 놓고 저녁해질 무렵이면 철수하곤 했지.
- 면담자 : 정말로 주민들이 견디기 어려운 생활이었군요. 혹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 구술자 : 이 마을은 너무 소외된 것 같아요, 문화적으로는 감호정과 죽보바위가 있고 고려시대부터 이곳에 염창이 있어 유서깊은 마을이고 보다시피 섬진강변을 끼고 있으며 산자수려한 곳이에요, 반면에 선대들의 아픈 상처를 후손들이 마음속에 담고 살고 있는 고을이지요, 이제는 세상이 많이 달라졌으니 정부에서 무어라도 좋으니 관심을 좀 가져주었으면 좋겠어요.

3. 6·25전쟁과 광양

1) 개요

남북한 사이에 체제 대립의 골이 깊어가면서 민족상잔의 날은 다가오고 있었다. 남과 북은 38선을 중심으로 서로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분쟁이 그칠 날이 없을 정도였으며, 남한 내의 산악지대와 제주도는 남로당이 주도하는 제2전선활동이 계속되고 있었다. 결국 북한의 남침으로 인하여 남한은 혼란의 도가니로 변하였다.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의 재빠른 참전에도 불

구하고 잘 훈련된 북한의 인민군은 거침없이 남진을 계속하였다.

북한군이 광양에 들어온 시기는 1950년 7월말이었는데, 약 두달동안 광양을 점령하고 있었다.⁴⁶⁾ 인민군은 광양지역에서 인민위원회·내무서·자위대 등을 면·리 단위로 조직하였다. 군인민위원장은 다압 출신의 김을수가 맡았으며, 부위원장은 북한에서 파견된 사람과 정군화가 맡았다.⁴⁷⁾ 광양군당책은 이승동이었는데, 그는 전쟁전 광양군당의 조직부장을 맡아 활동해온 인물이었다. 광양지역은 백운산을 거점으로 활동하던 빨치산 40여 명이 대기하고 있다가 전쟁후 합류하여 북한의 점령정책을 뒷받침하였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백운산에는 도당사령부가 자리잡고 있었는데, 당사업과 유격대활동을 지도했던 백운산 특수지구당(특각)이 활동하고 있었던 곳으로 유명하다. 특각이란 당과 유격대가 결합된 형태의 특수한 조직이었다.⁴⁸⁾ 이들이 북한의 점령정책을 펼치며 공개적으로 활동하다가 인천상륙작전으로 다시 전세가 기울자, 백운산과 지리산으로 입산하여 유격대로 전환하였다.

1951년 1월 백운산을 거점으로 활동하던 빨치산들은 광양읍을 기습하였다. 경찰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관공서가 한때 점거되어 읍사무소를 비롯한 민가 등도 소실되었다. 정부는 백운산으로 입산한 빨치산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진지를 구축하였다. 지서와 면사무소, 우체국 등 관공서를 중심으로 대나무 방어벽을 견고하게 쌓아 밤낮으로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잦은 교전과정에서 인명피해는 물론 지서와 학교, 면사무소 등의 건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았다.⁴⁹⁾ 특히 다압면이나 진상면 어치리의 경우에는 ‘마을 뒤에 앉아있어도 백운산에 앉아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빨치산의 출몰이 잦아 피해도 많았다.

전쟁기간이던 1951년 11월 전남도당과 유격대사령부는 화순 백아산에서 백운산으로 옮겨왔다.⁵⁰⁾ 당시에는 진압작전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전이어서 비교적 활동이 자유로운 편이었다. 백운산의 품이 크데다 광양·구례·곡성·순천 등 인접 군들과 연락이 쉽고 보급이 용이하여 유격대 거점으로 최적지였다. 또한 군경에 포위가 된다 하더라도 지리산으로

46) 이태상, 『우리고장 津上』, 2000, 96쪽.

47) 『광주전남현대사』 2, 297쪽.

48) 위의 책, 298쪽.

49) 『광양군지』, 341쪽.

50) 『광주전남현대사』 2, 302쪽.



사진2-125 : 공비들의 출몰이 잦자 마을입구에 울타리를 쳐 놓았음(1952. 1)

넘어가기에 유리한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백운산사령부는 14연대출신의 구빨치 남태준이 지휘하였는데, 그는 백운산에서 이름을 떨쳤다. 빨치산의 보급투쟁 때도 ‘남태준이 간다’면 지서 순경들이 도망갈 정도로 진압군에 위협적인 존재였으나, 1953년 12월 백운산에서 사망하였다.⁵¹⁾

51) 『광주전남현대사』 2, 303쪽.

한편, 군경은 귀순공작 위주의 선무공작과 동시에 51년 11월 1일 이후 12월 15일까지는 군경합동의 섬멸작전을 전개하였다. 당시 진압작전을 주도한 부대는 백선엽이 이끄는 「백야전전투사령부(Task Force Paik)」이었는데, 작전 명칭을 「쥐잡기작전(Operation Rat Killer)」이라 명명하였다.⁵²⁾

52) 白善燁, 『實錄 智異山』, 고려원, 1992, 17쪽.

동계토벌작전기간동안 군경측은 이른바 장축전술(長逕戰術)을 구사하였다. 그것은 빨치산을 계속 추적하여 고립·포위, 각개격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술이었다.⁵³⁾ 결국 광양지역의 빨치산들은 군경의 장축전술에 걸려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 52년 새해들어 진압작전은 더욱 강화되었다. 수도사단을 중심으로 백운산에서 활동하던 유격부대를 집중적으로 공격하였는데, 당시 그곳에는 전남 유격대 14연대, 7연대, 88정치공작대, 광양군당 유격대 등이 활동중이었다. 이들은 비교적 전투력을 잘 유지하면서 보급투쟁에 전념하는 한편, 언제 닥칠지 모를 진압군의 대공세에 대비하고 있었다.⁵⁴⁾

53) 김남식, 앞의 책, 418-9쪽.

54) 백선엽, 앞의 책, 87쪽.

55) 백선엽, 앞의 책, 87쪽.

수도사단은 백운산을 3면에서 포위공격하였다.⁵⁵⁾ 26연대는 구례에서 남동쪽으로, 기갑연대는 하계에서 남서쪽으로 백운산을 에워싸고, 흩어진 빨치산을 추적, 섬멸하는 임무는 예비대와 경찰에 맡겼던 것이다. 그런데 빨치산은 이들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가 기갑연대 3대대 본부를 급습하였다. 이날 전투에서 대대장 박명경 대위가 대퇴부 관통상을 입는 등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정도로 진압군의 피해가 적지 않았다.⁵⁶⁾ 이는 경계소홀이 주 원인이었지만, 대낮에 대대본부가 기습당한 사건은 실로 의외였다. 당시 빨치산들은 공군의 공중지원과 압도적인 화력으로 무장한 국군과 마주치는 것을 극도로 자제하였다. 대체로 그들의 피해가 많았기 때문이다.

56) 백선엽, 앞의 책, 88쪽.

그러나 백운산의 빨치산들은 예외였다고 한다.⁵⁷⁾ 무조건 도주로만 찾던 다른 지역 빨치산들과 달리 이들은 진압부대의 주의를 흐린 다음 후방에서 틈을 타서 공격하고 빠지는 교란전술로 괴롭혔다. 그러나 빨치산의 교란전술에 익숙해진 진압군의 효과적인 대응으로 이들도 분산·도주하는데 급급하였다. 결국 약 1주일간에 걸쳐 실시된 진압작전은 52년 1월말 종료되었다. 당시 지리산과 백운산의 진압작전으로 수도사단은 사살 1,867명, 생포 1,055

57) 위의 책, 89쪽.

의 전과를 올렸다고 한다.⁵⁸⁾ 비록 전과가 다소 과장되었다 하더라도 53년 휴전을 전후하여 백운산 지역에서 활동하던 빨치산들은 거의 소멸당했다.

당시 군경토벌대는 빨치산을 고립시키기 위해 백운산과 지리산 일대의 산간벽촌 마을을 소개시켰다. 예를 들면, 장수 534호 2,765명, 구례 2,570호 12,492명, 곡성 3,478호 18,129명, 남원 859호 4,555명, 광양 1,694호 9,329명, 하동 1,240호 7,698명 등 수만명의 농민들이 강제 이주당하였다.⁵⁹⁾ 이무렵 빨치산은 임실군당 유격대(310명), 순창군당(260명), 금산군당(300명), 진안군당(50명), 무주군당(130명), 장수군당(470명), 남원군당(150명) 등 1,500여 명을 상회하였다.⁶⁰⁾

58) 백선엽, 앞의 책, 90쪽.

59) 김남식, 앞의 책, 425쪽.

60) 김남식, 위의 책, 459쪽.



사진2-126 : 국군의 광양을 경계장면(1951. 봄. 광양을 빙고등. 이경모 사진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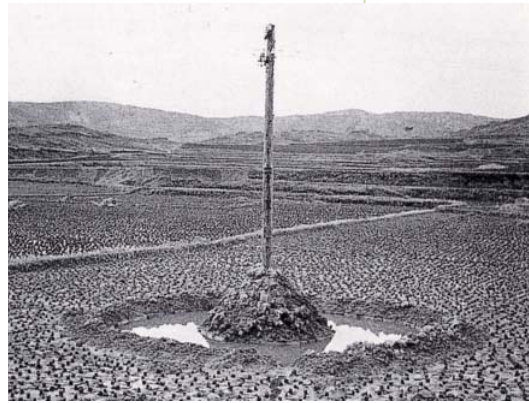


사진2-127: 공비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웅덩이를 파서 전봇대를 보호했음

하지만 빨치산들은 금강정치학원에서 남파된 무장부대의 잇다른 실패와 거듭되는 토벌작전에 의해 그 세력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52년 말에서 휴전무렵까지 남한 전역에 잔존한 빨치산 숫자는 대략 1천여 명으로 추계되었다.⁶¹⁾ 이들은 휴전협상의 대상에서도 제외되었다. 더욱이 이들은 하산하여 지하당을 조직하라는 북한의 지령을 받았으나, 남북 어디에서나 몸을 의탁할 수조차 없는 버림받는 처지였다.

61) 이태, 『남부군』, 522-3쪽.

1953년 9월 3일, 경찰 2연대 매복조는 구례군 토지면 섬진강가에서 빨치산 지도자 이형련을 생포하여 이현상의 은신처를 알아내었다. 그리하여 지리산 빗점골에는 대규모의 군경부대가 이현상을 체포하기 위해 몰려들었다. 남부지구경비사령부 소속 제56연대 수색대와 서전사 소속 경찰 2연대 김용식 수색조가 그들이다. 이들에 의해 이 현상은 9월 17-18일 사이에 사살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⁶²⁾ 수많은 수수께끼를 남긴 채 이현상의 시

62) 이태, 위의 책, 524쪽.

63) 이태, 위의 책, 533쪽.

신은 화개장 섬진강가 백사장에서 화장되어 그 재는 섬진강에 뿌려졌다.

그 이듬해 4월, 전남도당 부위원장이자 전남유격대장을 겸하던 김선우가 광양 백운산에서 토벌대와 교전 끝에 수류탄으로 자결하였다.⁶³⁾ 이로써 남한내 최강의 유격대를 지휘하던 지도자의 최후의 순간이었다. 그의 아지트에 그가 탐독한 서적이 가득한 것을 본 토벌대의 연대장이 정중한 장례를 치러주고 묘까지 만들어준 일화가 남아 있다. 김선우 밑에서 유격대 부사령으로 있던 오금일도 김선우의 사망직후 통명산에서 부상을 당해 포로가 되었는데, 연행직전에 자결하여 전남도당 수뇌부는 54년 전반기에 거의 섬멸되고 말았다.

이로써 국군 5사단(사단장 박병권준장)의 겨울철 토벌작전은 54년 전반에 종료하였다. 결국 백운산과 섬진강을 끼고 있는 광양지역의 빨치산 활동은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대외적으로는 미소의 냉전, 대내적으로는 계급투쟁의 갈등과 대립, 그리고 무모한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좌우로 나뉘어 싸우다 수만 명이 피흘리며 죽었으나 반성도 화해도 없이 끝난 것이다.



사진2-128 : 백운산지구 전몰장병 위령비 (옥룡면 산본)



사진2-129 : 무명 경찰관의 묘(광양읍 덕례리)

2) 제14연대 반란사건과 6·25동란 기간 광양의 여러상황

- 다음 글은 1982년경에 광양경찰서에서 자료를 제공하여 1983년 광양 군지에 게재된 내용을 인용·게재한 것임
- 그 내용중에는 제14연대 반란사건과 6·25동란 당시의 상황이 구별되어 나타나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밝혀둔다.
- 그 당시 살상된 민간인의 인원은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 금 후 구술조사 등을 통하여 그 실상을 구두상으로라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광양시지편찬위원회에서 원고 게재

- ①광양의 전몰장병수 : 102명 (麗順 26명, 6·25사변 76명)
- ②유가족수 : 433명 (麗順 100명, 6·25사변 333명)
- ③공공재산피해 : 광양서국민학교, 구군청, 구읍사무소, 연습림, 봉강국민학교 관사, 봉강지서, 골약면사무소, 옥룡국민학교, 다압면사무소, 다압지서, 옥곡지서, 옥곡면사무소.
- ④지방폭도로 인한 사망자 : 268명
- ⑤우익단체의 활동상황
 - 대한청년단
 - 단장 : 김재후(일명 오동) · 구성인원 : 약 1만명.
 - 활동상황 : 좌익계 학생활동 대항 · 반공활동
 - 서북청년단
 - 회장 : 서규운 · 구성인원 : 약 250명
 - 활동상황 : 반공활동 · 야경 · 경찰과 군인지원 · 정보제공
 - 학생연맹
 - 단장 : 김재후 · 구성인원 : 10여명
 - 활동상황 : 좌익단체 견제 · 야경
- ⑥이 외 북괴군에 납치되어 수감되었던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병화(진상면 황죽리, 전 면장)와 문성봉(진상면 금이리)등이 있다.

3) 증언 및 자료로 살펴본 6·25전란중의 백운산 빨치산 활동

가. 빨치산 참여자 증언에 의한 백운산 ‘빨치산’ 주둔지 및 활동내용
 (본 분야 집필위원 원고와는 별도로 광양시지편찬위원회에서 본 사건에 대한 흔적을 기록하고자 조사하였음)

1. 조사개요

- 기간 : 2000. 3. 15~3. 16(2일간)
- 지역 : 백운산의 옛 ‘빨치산’ 비트지역
- 방법 : 1948. 10~1954. 12월 동안 전라남도 당본부가 소재한 백운산의 ‘빨치산 비트지역을 당시 참여한 빨치산 출신간부 4명과 광양시지편찬위원회 관계자와 합동 현지조사

2. 조사결과

- 1) 빨치산 주둔지 옛터
 - 전라남도 당지휘 본부
 - 광양시 옥룡면 답곡마을, 제일 송어장과 한재 중간지점에서 백운산 상봉 3km지점인 일명 용숫골 계곡에 위치하며 면적은 약 3,000여 평
 - 약간 경사진 지역으로 현재 시루대, 고로쇠나무, 잡목등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 당시 본부로 사용했던 흔적을 쉽게 알아볼 수 없으나 본부지역에 있었던 우물 2개소와 50여 명의 교육장으로 활용되었던 선전학교 옛터흔적이 조사됨
 - 연락책 본부
 - 당지휘 본부에서 서쪽 약 1km계곡(일명 : 큰 용숫골)에 위치함. 이곳 부근에서 당시 쌀을 찼던 디딜방아(넓이 45cm, 길이 25cm)가 조사됨
 - 연병장
 - 제일 송어양식장에서 병암계곡 방향 300m지점에 위치한 약1000여 평 부지, 500여 명의 교육장으로 활용하였던 장소로 약 20년전에는 전답으로 이용하였으나 현재는 잡목이 무성한 상태이나 연병장 옛터는 쉽게 확인할 수 있음
 - 백운산 「빨치산」 주둔진지 분포
 - 당시 참여자 증언에 의하면 파리봉 부근에 경비초소 2개소, 참새미계곡에 병기창고가 위치하였고, 병력주 둔진지는 파리봉계곡에 5개

소, 병암계곡, 백운암계곡등 100여 곳에 옷관집(난방이 되는 구들돌 설치), 천막, 자연굴을 이용하여 비트(진지)장소로 활용하였음

• 전라남도당 본부기구(백운산)

- 위원장 : 1명(총사령관) · 기요과 비서실 : 남자 2명, 여자 1명
- 도위병실 : 남자 5명 · 여성동맹부장 : 3명
- 총무부장 : 보급 2명, 고도리 2명 · 조직부장 : 3명
- 간부부장 : 3명 · 노동부 : 3명
- 사회단체장 전남인민위원장. 전남농민위원장. 민청년위원장 등 : 5명
- 전라남도당 선전간부학교

• 전라남도당 본부건물형태

- 위원장, 비서실, 여성동맹부장, 조직부장의 근무건물 4동은 잡목으로 벽을 만들고, 지붕은 시누대와 갈대를 사용하였으며, 난방으로 온돌을 설치하여 일명 옷관집으로 불렀음. 나머지는 텐트를 사용하였음

나) 당시 참여자의 증언에 따른 빨치산 활동개요 및 주요사건

• 빨치산 활동개요

- 백운산 주둔기간 : 1948. 10월말~1954. 12월말
- 역대 도당위원장 겸 총사령관(백운산)
박영발, 유봉운, 박종화, 남태중, 이병옥, 김선우
- 주둔인원 : 3000여 명, 사망자 900~1000여 명
- 주요활동사항 : 노동당 의식 · 사상교육, 교통도로망 마비업무, 보급사업, 유격대활동, 행정마비 업무 및 공공건물 방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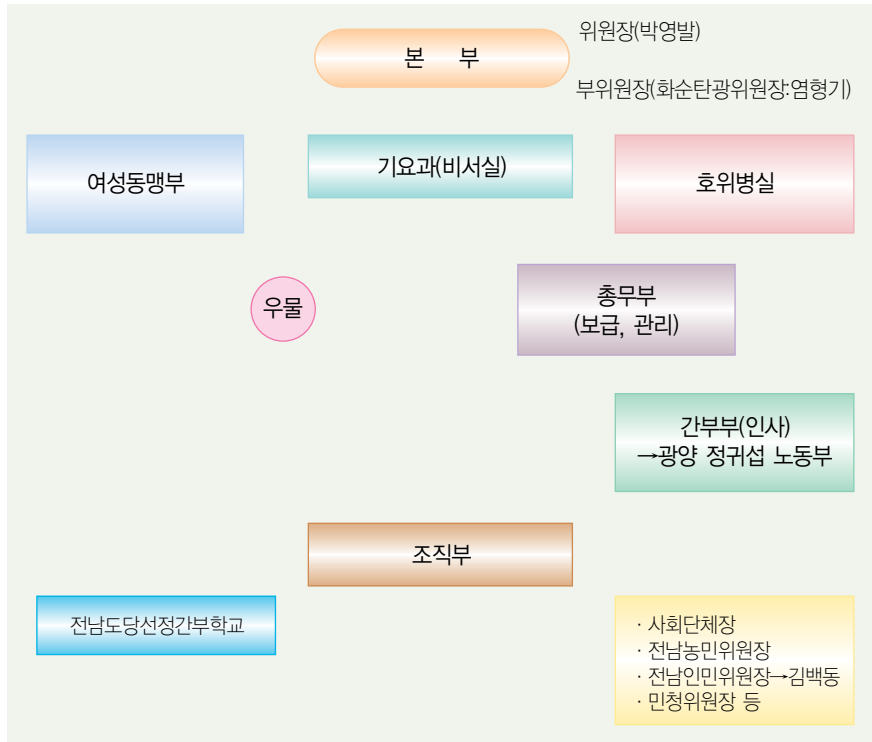
• 빨치산 주요사건

- 1948. 10. 24 : 여수 14연대 지창수가 주동, 400여 명의 좌익병력이 백운산 최초진입(유봉운 ‘여수’ 백운산부대 창설)
- 1949. 3 : 박종화 구례 빨치산 부대와 합류, 백운부대 창설
- 1950. 7 : 유봉운, 남태중(여수 14연대 출신) 총사령관, 인원 800여 명으로 백운산 부대 창설
- 1951. 6. 24 : 광양시 진상면 황죽리 신황마을에 주둔한 제15연대 증대병력 섬멸(포로 75명, 희생자 15명, 포획류 80여 점)
- 1951~1953 : 광양읍사무소 및 각면사무소를 침입하여 공공건물 전

소시킴(빨치산 부대원 200여 명 희생)

- 1953~1954. 12월 말 : ‘백운산 부대’ 명칭을 ‘남태군부대’로 변경한 이후 빨치산 부대는 최후를 맞음(군부대 및 경찰서와 백운산을 중심으로 수시 교전을 하고, 일진일퇴를 거듭하였음)

- 전라남도 당지휘본부 약도
 - 전체규모 : 100m × 50m
 - 건물형태 : 옫관집 4개소 천막 5개소
 - 근무인원 : 100명 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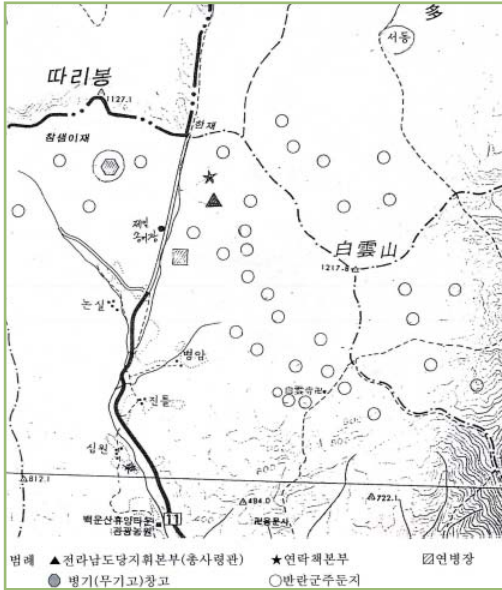


사진2-130 : 빨치산 주둔지 분포도
 · 기 간 : 1948. 10~1954. 12
 · 개 소 : 윗판집, 천막 초소포함 100개소 내외
 · 인 원 : 3,000여 명

사진2-131 : 전라남도당 지휘본부 터(웅숫골)

※참고사항

제 14연대 반란사건과 6·25 사변기간에 광양의 각 마을별 민간인 피해상황을 광양시지 편찬위원회에서 현지 마을 주민들을 통하여 구두로 조사하였으나 이를 규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 일부가 정부 비밀문서(2002. 12. 31 현재)로 취급되고 있어 타 시·군 사례를 참작하여 금번 광양시지에는 계재를 생략하며 조사된 기록은 광양시지편찬위원회에서 보관함.



사진2-132 : 당시 빨치산 가담자 임복순, 정운창, 박부유, 현지설명

4) 「빨치산」 공비에 의한 광양의 읍면사무소 건물 방화실태

① 광양읍

- 일시 : 1951. 1. 14 새벽1시경
- 장소 : 광양읍사무소(현, 읍사무소 이전 건물)
- 방화자 : 「빨치산」 공비
- 내역 : 전소
 - 본청사(76.5평), 청사부속서류고(4평), 제반공부
 - 숙직실(10평), 창고(40평), 비품 및 소모품

② 옥룡면

- 일시 : 1951년
- 장소 : 옥룡면사무소
- 방화자 : 「빨치산」 공비
- 내역 : 전소
- 본청사(53.6평), 제반공부
- 숙직실(17평), 비품 및 소모품

③ 옥곡면

- 일시 : 1951. 10. 20 저녁9시40분경
- 장소 : 옥곡면사무소
- 방화자 : 「빨치산」 공비
- 내역 : 전소
- 본청사(40평), 청사부속 서류고(3평), 제반공부
- 숙직실(12평), 창고(24평), 비품 및 소모품

④ 진상면

- 일시 : 1951년
- 장소 : 진상면사무소
- 방화자 : 「빨치산」 북한군
- 내역 : 전소
- 본청사(56평), 서류고(3평), 제반공부
- 숙직실(6평), 창고(30평), 비품

⑤ 다압면

- 일시 : 1951년
- 장소 : 다압면사무소
- 방화자 : 「빨치산」 공비
- 내역 : 전소
- 본청사(40평), 서류고(3평), 제반공부
- 숙직실(12평), 창고(24평), 비품 및 소모품

⑥ 골약면

- 일시 : 1952. 6. 8 저녁10시5분경
- 장소 : 골약면사무소
- 방화자 : 「빨치산」 공비
- 내역 : 전소
- 본청사(40평), 서류고(3평), 제반공부
- 숙직실(13평), 창고(24평), 비품 및 소모품

【참고자료 : 광양군청, 1952~1956년, 재산관리철】

▶ 6·25동란과 골약

이 글은 「骨若郷土誌」에 실린 글 중에서 6·25당시 골약면의 실상에 대하여 적은 글을 그대로 발췌하여 게재한 것임. 「骨若郷土誌」는 1990년 11월 골약향리 친목회에서 발행한 향토지로 글쓴이는 당시 골약향토지 편찬위원장인 고 유명하씨이다.

이 글의 게재 사유는 약 15년 전 책으로 남긴 내용이고 당시 각 읍면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6·25동란으로 인한 우리 고을의 실상을 많이 반영한 것으로 판단하여 게재함.

※본 원고는 집필위원 원고와는 별도로 광양시지편찬위원회에서 조사·게재한 것임

- 북괴 인민군이 광양지방을 장악한 것은 1950년 7월 25일이었다. 동월 24일 이미 경찰 병력 등은 육로로 하동을 거쳐 후퇴했고 미처 후퇴 못한 관리들은 초남을 거쳐 하포선창에서 선박을 이용하여 피난길에 오른 것이다. 그러나 골약면내 주민들은 일부 특수층을 제외하고 가사에 전념하고 있었다.
- 골약면 인민위원회가 구성되고 공산당 치하의 행정의 시작된 것은 동년 7월 28일부터다. 마을마다 여성동맹위원회가 조직되기 시작했고, 면민들은 공산당의 사상교육에 동원되었다. 인민군이 골약에 주둔한 것은 8월 10일경이다. 성황국민학교에 본부를 두고 활동에 나선 인민군 수는 100여명에 불과했다. 주력부대는 마산, 익산을 공략하기 위해 낙동강 전투에 총집결되었고 점령지역인 후방에는 이용군(利用軍)으로 강제로 끌려온 16~18세의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성황에 주둔했던 인민군 가운데는 거의가 장총(長銃)을 휴대했고, 연발총인 따발총은 몇자루에 불과했다. 그런데 장총을 멘 인민군의 대부분이 총, 개머리판이 땅에 끌릴 정도로 어린 총생들이었다.

우리 지역은 광양만의 광활한 해안선을 끼고 있고 염포, 하포, 길호, 와우, 태인, 광포, 망덕 등 주요 선창들이 많아 군사상 중요 요충지로 관리된 것이다.

인민군은 언젠가 진격해 올지 모를 국군을 격퇴할 목적으로 염포에서 광포까지 해안선의 산등성이에 방어 호(壕)를 구축하기 위해 면민들에 동원령이 발동됐다. 넓이 1m, 깊이 1.5m의 규모로 산능성을 파기 시작한 작업은 야간에 동원됐다.

주간에는 아군기(호주기 또는 썩썩이로 불렀다)의 공습이 강행됐기 때문이다. 이 때 중마동 주민들은 황방, 고길, 상포까지 동원됐는데 취사도 구까지 준비하여 며칠씩 현지에서 숙식을 하며 작업에 동원된 것이다.

추수까지는 1개월 이상 시일이 남았기 때문에 절약농가가 심각할 때였다. 주식은 생보리에, 반찬은 된장이 고작이고 보면 당시의 실상을 가히 짐작할 것이다. 그뿐 아니라 주간에는 인민군의 군량미 운반에까지 동원됐다. 호암 앞 국도변에 적재해 둔 양곡을 하동방면 신원까지 운반했는데 운반수단은 지게에 짊어지고 옥곡·진상을 경유, 지름길인 매치재를 경유했다. 마을별 운반책임량이 할당되어 노소할 것 없이 무자비하게 동원된 것이다. 동년 9월 10일에는 호암 앞에 적재해 둔 양곡이 아군기에 의해 폭격을 당했고 진상앞 도로에서는 양곡을 운반하던 대열에 위협폭격을 하기도 했다.

인민군이 우리고장을 후퇴한 것은 10월 1일 밤이었다. 이날 주간에는 양곡을 신원까지 운반했으나 검수하던 인민군은 한 사람도 없었고 대근마을 뒤 등성이에서 호를 파던 작업이 한창일 때 밤 12시가 지났을 무렵 작업 감독을 하던 인민군들은 아무런 말도 남기지 않고 사라지고만 것이다.

10월 2일 광양전선이 수복되기까지 공산치하의 63일은 막을 내렸다. 그러나 패퇴한 인민군과 지방 공산주의자들은 후퇴길이 막히자 백운산과 지리산으로 퇴각했다. 이때부터 빨치산들의 만행이 자행되기 시작했다. 지리산에는 빨치산 총사령관 이현상(李鉉相)이 2천여명의 공비들을 통솔했다. 공비들은 식량이 떨어지자 지리산과 백운산 주변의 광양, 하동, 구례, 곡성, 산청지역의 평화로운 마을에 출몰하여 주민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정부는 지리산 공비토벌을 위해 남원에 서남지구 전투사령부를 창설하고 본격적인 토벌작전이 감행됐다. 결국 이현상(李鉉相)이 이끌던 2천여명의 공비들은 무참한 최후를 마치고 아군의 사상자도 많았다. 그러나 지리산의 마지막 공비잔당은 정순덕(鄭順德)(여자)과 남자 등 3명으로 1962년 경남 산청에서 남자 2명은 사살되고 두목 정순덕은 생포됨으로써 남부군 또는 지리산 공비소탕은 종지부를 찍게 된 것이다.

1956년까지 공비들에 의한 우리 지역의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1951년 1월 14일 밤, 광양읍내를 습격한 빨치산 부대는 경찰서를 제외한

모든 기관 관공서가 공비들의 손아귀에 접수되었으며 방화와 살인의 만행이 자행되었다.

이때 구 읍사무소(옛 객사)건물과 연습림이 소실되었으며 부유층의 민가도 많은 피해를 당했다. 공비들의 만행으로 소실된 기관은 광양서 국민학교, 봉강국민학교장 관사, 봉강지서, 옥룡국민학교, 다압면사무소, 다압지서, 옥곡지서, 옥곡면사무소 등이고 골약면사무소 청사도 이때 전소되었으며 호적부까지 소실되고 말았다.

그후 골약지서도 공비들에 의해 소실되었다. 공비들은 백운산 주변의 마을에 출몰하여 식량과 가축을 닥치는 대로 수탈해가기 시작했고, 피해를 막기 위해 해질 무렵이면 농우(農牛)등 가축은 지서 부근에 소개했다가 이튿날 날이 밝으면 소를 몰아다 농사일을 하는 등 그 고충이란 말로 형용할 수 없었다. 빨치산이 우리 지역에 가장 많이 출몰했던 마을로 사동, 불로, 오류, 마동 등을 꼽을 수 있다. 빨치산의 출몰 루트는 옥곡면 선유리를 거쳐 마당재, 군장입구인 “몰궁구리”재 정산뒤 안골 중턱 길을 따라 차돌벽재를 거쳐 불로 또는 오류까지 주로 능선을 이용했다.

밤이면 군재, 정산, 용장지역 주민들은 가축(牛)을 지서 소재지인 성황지역에, 사동 마동 불로 오류 지역은 바리섬 또는 길호 등 해안지역으로 소개했으며 각 마을 유지급 인사들은 아예 안전지대로 옮겨 살기도 했다. 밤이면 마을마다 야경(夜警)조를 구성하여 공비출몰에 대비했으며 한청대원들이 야경독려를 하기도 했다. 빨치산 부대가 마을에 출몰하면 어떤 수단을 가리지 않고 지서에 신고해야 했다.(통신수단이 없기 때문에 보행으로 지서까지) 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덮어두었다가 발각이 되면 마을 이장은 물론 야경담당자들은 지서에 끌려가 줄초상이 날정도로 고문을 당했으니까 말이다. 그뿐 아니라 밤이면 빨치산에 양곡등을 수탈당하고 낮이면 지서에 끌려가 빨치산을 도왔다는 트집을 잡아 무수한 고문을 당하는 등 치욕적인 생활은 이루 말할수 없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 우리 지역에도 빨치산의 출몰이 잦아지자 지서 방호포대를 구축하는데 면민들은 부역에 동원되었고 지서를 지키기 위해 야경까지 도맡아야 했다. 포대구축 공사가 끝나자 사동 중촌 등 면내의 대밭(竹)의 장죽이라곤 송두리째 벌채하여 지서를 중심으로 울타리를 설치했다.

그뿐이라 면민들은 지서지키기 야경에까지 동원되었는데 울타리 안에

는 경찰과 이용경찰이, 울타리 밖에는 순박한 면민들이 야경을 도맡고 있었으니 당시의 실상은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1952년 1월 10일 밤에는 빨치산들이 오류마을에 출몰했다. 식량등을 약탈한 공비들은 마을 젊은 층 10여명에게 짐을 지워 백운산 아지트까지 끌고 갔다.

방한복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끌려간 이들은 하산길에 서한주(徐漢柱)등 4명이 백운산 중턱에서 동사하는 변을 당했다. 더욱 가상스러웠던 것은 공비들의 출몰이 잦았던 길목인 마당재 물궁구리 고삼재 등 주요 도로 양편 100m를 말끔히 별채하는 데까지 면민들이 동원되었으며 작업 감독은 경찰이 주관한 것이다. 공비들의 만행으로 소실된 면사무소 청사 복구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1953년 봄이다. 건축자재가 귀할 때라 석조건물로 세워진 것인데 석재는 중촌마을 안산에 자리한 거대한 청(靑)바위를 발파하여 경치돌로 다듬었고 면민들은 석재운반 부역에 피땀을 흘려야 했다. 중촌 앞 청석이 모자라 정산마을 북쪽편 일명 바깥 ‘숨마실’ 청석(靑石)까지 쓰여진 것이다.

면민들의 애환이 담긴 석조건물 면사무소 청사는 건축한지 32년만인 1987년 현대식 철근 콘크리트 2층 건물로 신축되어 면사무소로 쓰여 오다가 1989년 1월 1일 동광양시 승격에 따라 성황동사무소로 간판이 바뀐 것이다.(현재는 골약동사무소 청사로 이용)

사회주의자 유가족이 전하는 이야기

- 구술일시 : 2005. 8. 2. 14:53~16:04
- 구술장소 :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삼익아파트 102동 103호
(구술자의 집)
- 구술자 : 박흥하(朴興夏, 여자, 1925년생)
- 구술자 약력 : 왜정시대 민족주의자로서 독립투사였고 해방이후 사회주의자였던 김완근(金完根)씨의 며느리
- 면담자 : 광양시지편찬위원회 상임위원 김광호

※본 원고는 집필위원 원고와는 별도로 광양시지편찬위원회에서 조사·게재한 것임

- 면담자 : 저번에 2번 만나뵈었는데 오늘 보니까 그동안 참 건강해지셨네요. 할머니님, 몇 살 때 시집오셨어요?

- 구술자: 내 친정은 골약면 하포여, 18세때 시집왔지 우리 박씨 집안에는 골약면장을 한 분이 계셨고, 내가 시집올때는 왜정시대였지. 김완근씨가 저의 시아버지가 되고 그의 작은 아들인 김복태씨가 나의 남편이여. 다 돌아가셨어.
- 면담자: 시집와서 이곳 집안 분위기를 말씀해 주세요.
- 구술자: 왜정시대인데 시집와서 얼마 안있어 시아버지인 김완근씨가 왜경들한테 잡혀가서 감옥살이를 했지. 그때부터 내 인생은 험난했어, 시아버지가 감옥살이를 하고 있으니 뒷수발은 내가 한 것이여. 옷이랑 간식도 넣어주고 몸이 아프면 보약도 맵그러서 갖다 드렸지.
- 면담자: 그 후에 해방이 되고, 제14연대 반란사건, 6·25동란등 사회가 혼란스러웠는데 그 당시는 어땠어요?
- 구술자: 속사정은 여자가 되어와서 잘 모르것고, 해방이 되자 시아버지께서 여러곳에 연설을 하고 다녔지. 내 생각으로는 그 당시 광양군에서 제일 대장격이라, 연설을 하러 다니며는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보조해 주는 남자들, 밥해주는 여자들이 따라다녔지. 그런데 나중에는 남자들, 여자들 할 것 없이 경찰에 잡혀가서 두들겨 맞기도 하고 남자들은 감옥살이를 했어요. 여자들은 밥은 해 주었다고, 여·순 반란사건때는 시아버지는 이북에 가 있었어. 그런데 김용태씨라고 나의 시숙되는 사람인데 산으로 갔어(백운산). 왜 갔는고하니 시아버지와 같이 행동한 사람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가만 놔둘 리가 없지, 그땐 잡히면 죽는 세상이여, 그 뒤부터 김용태씨를 찾아내라고 경찰서에서 와서 들볶았지. 하다 참지 못하여 몰래 찾아온 김용태(시숙)씨한테 이야기했더니 아버지가 이북에 가 있는데 그분을 위해서도 자수를 할 수 없다고 그랬어.
- 면담자: 6·25동란이 나고 김완근씨는 어땠나요?
- 구술자: 6·25동란이 나고 약 2개월여 동안 광양이 이북치하에 있었고, 그 이후에는 다시 수복이 되어 백운산 공비 토벌기간이었어. 그 당시에 시아버지가 이북에서 몰래 이곳 집으로 찾아온 것이여. 오는데 약 15일 걸렸는데 술읖을 따먹고 끼니를 때우면서 죽을 고생을 하며 집(현재 유림정 부근)에 도착하자마자

“복태야” 하면서 쓰러지셨어. 그 당시 입었던 옷이고 머리에는 이가 바글바글해서 지금 생각해도 몸서리쳐지는 모습이었어.

- 면담자: 그 이후에 시아버지인 김완근씨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 구술자: 그 당시 우리집 뒤 대밭에다가 굴을 파고 셋이 들어갈 만큼, 그리고 산에 가 있는 씨숙인 용태씨하고, 또 누구 한사람해서 셋이 숨을 장소를 마련했어. 거기서 한참 생활을 하였는데 나중에 경찰서에서 낚새를 채고 잡아갔어. 그때 잡아간 사람은 경찰서 사찰계 차석 김○○씨라고 해. 실은 사찰계 주임인 김○○씨가 시킨 것이라고 하드만.
- 면담자: 시아버지 김완근씨는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 구술자: 시아버지하고 시숙인 용태씨가 광양경찰서 유치장에 있었는데 약 3개월 지나서 경찰서에서 시아버지를 끌어내어 포승줄로 손을 뒤로 묶었대. 그때 전하는 이야기로는 시아버지가 “용태야, 나 간다”가 마지막 남긴 말이고, 그 이후 영원히 소식이 없는 것이지.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사찰계 주임인 김○○씨가 운전기사와 함께 시아버지를 태우고 여수 어느 해변가로 가서 총으로 쏘아 죽이고 바닷물에다 버렸다고 그래. 유치장에서 6개월 동안 갇혀있던 시숙인 용태가 출옥후 수소문하고 나서 나에게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해주었어.
- 면담자: 시아버지인 김완근씨의 시체를 찾지 못했다고 들었는데요.
- 구술자: 처음에 갇혀있던 시숙인 용태씨로부터 경찰서에서 아버지를 죽이고 나서 물에다 버렸다고 말만 들었지, 어디서 죽였는지 알수가 없어서 내가 광양읍 서천과 동천의 합수지점 아래쪽을 뒤졌지. 도청 강이란 곳을 샅샅이 뒤져봐도 없었어. 나중에는 점쟁이를 데리고 와서 그럴만한 곳에서 곳을 해보고 그랬어.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곳을 하고 있는데 커다란 학이 날아와 이곳 주변에서 오래 앉았다가 곳이 끝나자 저쪽 여수쪽으로 날아갔어, 지금도 그 모습이 환해.
- 면담자: 시체없는 무덤을 만들어서 혼백을 모셨다고 들었는데요.
- 구술자: 시체는 결국 찾지 못하고, 그 당시 우리집 부근인 우산공원 산자락에다 밤나무를 깎아 혼백을 만들고, 사진을 넣어 무덤을 만들었지. 나중에 우산공원에 길이 난다고 이장하라고 해서

시아버지의 어머니님 묘옆에다 이장을 했어. 그때 보니깐 밤나무는 그대로 있는데 사진은 못쓰게 되었드만.

- 면담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지요?
- 구술자: 요즘은 세상이 많이 좋아졌지요. 우리 시아버님이 해방이후 서로 생각이 달라서 사회주의 운동을 하였는데 누구를 추호도 해한 적이 없어요, 왜정시대에는 애국지사였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아무 재판 절차없이 죽어버렸고 시체도 못찾고 있으니 가슴에 한이 맺혀 있어요, 우선은 우리 시아버님 묘소에다 정부에서 비석이라도 하나 세워주었으면 해요, 그게 소원이예요, 내 나이가 이제 80이 넘었는데 나 죽기 전에 그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완근씨의 조카 사위되는 김옥기씨가 지금 고인이 되었는데 저의 집안의 애통함을 시로 지어 남긴 것이 있는데 줄 테니까 참고하기 바라오.

백골없는 무덤

김옥기 지음

구산리 산자락에	흘린피가 얼마던가
백골없는 저 무덤아	백색의 모진탄압
내 고장 항일투사	님의 형체 간곳몰라
님의무덤 처량코나	효성스런 며느리가
일제의 모진탄압	억울하고 억울해서
굴함없이 싸웠도다	밤나무에 혼백새겨
잔악한 감옥살이	님의무덤 만들었소
몇 개 성상 흘렸던고	반세기의 분단장벽
모진 탄압 물러가고	평화로운 꿈을 꾸며
해방만세 총천드니	따사로운 민족 혼이
해방의 만세소리	평화통일 외치고나
춘몽처럼 사라지고	묻지말자 묻지말자
허리짚린 조국땅에	님의 이름 묻지말자
	민족통일 그날오면
	님의이름 환생하리

광양읍 옛 화신광장에 대한 역사

- 구술일시 : 2005. 8. 2. 14:53~16:04
- 구술장소: 광양시 광양읍 읍내리 188-6(구술자의 집)
- 구술자 : 장세억(張世億 · 1926년생)
- 구술자 약력 : 1947년부터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1987년 광양군 과장으로 정년퇴직한 사람으로 1949년부터 옛 화신광장 부근에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옛 화신광장을 비롯하여 광양읍 변천 역사를 잘 알고 있음.
- 면담자 : 광양시지편찬위원회 상임위원 김광호

※본 원고는 집필위원 원고와는 별도로 광양시지편찬위원회에서 조사·개제한 것임


- 면담자 : 그 동안 십여차례 광양읍 역사자료 수집에 협조하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옛 화신광장에 대하여 그 역사를 알아보려고 찾아뵈었습니다.
- 구술자 : 화신광장(和信廣場) 이름 유래는 현재 화신식당 남쪽 도로 건너편에 1,000여평 되는 광장이름인데 왜정시대 현 식당에서 서쪽편으로 커다란 상점인 화신상회(和信商會)가 있었다하여 이곳 상회이름을 따서 화신광장(和信廣場)이라 했어.
- 면담자 : 옛 화신광장이 말 그대로 넓은 터가 마련되어 각종 집회·주요사건등이 이곳에서 행하여 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내역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 구술자 : 왜정시대 초기에는 이곳에 장이 섰었다고 전하는데, 본래는 장이 섰던 곳은 남문성 안쪽에 해당되는 지역인데 현재 우리 집 담장의 남쪽에 동서로 길게 장이 섰었는데 그 뒤 화신광장 쪽으로 잠시 옮기었다고 전하고 있고 그 다음은 상설시장으로 옮기어 오늘에 이르고 있지. 이곳 화신광장은 해방되기 전까지는 유일한 문화공간이 되어 씨커스단이 자주 이곳에서 공연을 하였는데 공연이 있는 날에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구경하려고 들뜬 기분으로 이곳 광장에서 웅성거렸고, 1945년 해방되던 해인 11월달에는 이곳 광장에서 인민재판을 하였는데 왜정시대 마지막 군수가 일본 앞잡이 노릇을 하여 많은 뇌물을 일본 간부들에게 바쳤다는 것이 죄목이었지. 당시 군수가

석화(하포), 뱀장어(망덕), 생청(백운산), 꽃감(다압) 등 지역 특산품을 거두어 바쳤다는 내용이지. 그리고, 제14연대 반란 사건 때는 반란군이 처음 우리고을에 입성하여 이곳 광장에서 공산주의자들이 합세, 군중들을 모이게 해놓고 선동연설을 했던 곳이야. 백운산 공비토벌 시기에는 진상등지에서 잡은 공비들(12명)의 목을 잘라 이곳 광장에서 벽돌위에 놓고 이름을 붙여서 모든 군민들이 보도록 했던 쓰라린 역사의 현상이었어. 그런데 당시 공비들을 무참히 학살했던 연유는 소위 1·14사건 보복행위였다고 이야기들을 했었어. 또한 6·25 동란기에는 무고한 주민들을 잡아다가 이곳에서 공개처형을 했던 곳이었어.

- 면담자: 1·14사건이란 내용이 무엇인가요?
- 구술자: 그것은 1951. 1. 14. 새벽 1시경에 빨치산 공비들이 광양읍에 쳐들어와 저지른 방화사건이며 살인 만행사건을 말하지. 공비들의 방화사건은 참으로 엄청났어. 옛 읍사무소 건물(옛 객사) 및 부속창고가 소실되고 그 당시 군청(현 읍사무소) 지붕이 모두 불탔으며 우리집 근처에 보관된 정부양곡 6,000여가마가 소실되고, 연습림 본관 건물 및 그 당시 부잣집 5-6가구가 모두 소각되었지. 1951~1952년 사이에 공비들의 방화로 광양읍 뿐만 아니라 옥룡, 옥곡, 진상, 다압, 골약면사무소가 모두 불에 탔는데 그 폭도들이 방화하면서 무고한 주민들을 살인도 하는등 무법천지였지.
- 면담자: 현재 화신광장이 사라졌는데 그 경위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 구술자: 1958년경 지방자치 시대에 그 땅이 광양읍땅이 되어 있었는데 당시 광양읍장이던 정봉식씨가 개인에게 불하하였지. 그것 때문에 광양읍 주민간에 찬반여론이 있었지. 개인불하가 되니깐 그 지역이 광양읍 중심가가 되어 자연적으로 상가가 조성된 것이지.
- 면담자: 화신광장이 사라짐으로서 당시 군민 집회장소·문화공간이 없어진 셈인데 그 당시 대체할 만한 장소가 있었습니까?
- 구술자: 그게 바로 군민회관이야, 광양군에서 그러한 장소를 물색한 결과 1972년에 군민회관을 지어서 각종 문화행사·광양군단

위 행사를 이곳에서 하였는데 1992년 이곳 건물도 사라졌어, 현재 그 터는 광양읍사무소에서 연습림쪽으로 가자면 좌측 주차장이 그 터예요. 그 뒤에 광양문화예술회관, 광양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백운아트홀, 전남드래곤즈 축구장 등 커다란 규모의 건물이 들어서 문화·체육 및 시민의 모임장소로 현재 사용되고 있지.

- 면담자 : 구술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필 : 순천대학교 박물관장 홍영기

4. 민주화운동과 광양

1) 개요

우리의 현대사는 외세와 분단, 억압과 민주세력의 저항의 역사로 점철되었다. 노동자, 농민, 학생, 지식인, 종교인 등 민중을 비롯한 평화통일과 기본권의 보장,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모든 세력들의 지칠 줄 모르는 투쟁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앞당겼으며 이는 희망의 미래를 개척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4·19혁명은 1960년 4월 19일에 절정을 이룬 한국학생들의 일련의 반부정, 반정부 민주화운동으로 이승만의 장기집권을 종식시키고 제2공화국의 출범을 보게 한 역사적 전환점이 된 사건이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로 민주주의의 허리는 동강났고, 군부 세력의 장기집권 음모로 1972년 12월 17일 유신을 선포하였다.

유신체제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반인륜적 범죄 행위로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무참히 짓밟았으며 체제에 반대한다고 혹독한 고문을 가하여 간첩 죄(罪)의 누명을 씌어 최종심(最終審)이 끝난 지 19시간만에 8명의 젊은 지도자를 처형한 만행을 저질렀다.

1979년 10.26사태로 박정희 독재 정권이 무너졌지만 민주주의의 앞날은 더욱 더 암울한 먹구름이 되어 국민의 가슴을 짓눌렀던 것이다.

박정희 사망 직후 군부의 실세로 등장한 전두환의 막후 실력 행사로 살얼음판 같은 정치 현실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전두환은 1980년 5월 18일 광주 민주 항쟁을 군(軍)(공수부대)을 투입



1979년 10.26사태로 박정희 독재 정권이 무너졌지만 민주주의의 앞날은 더욱 더 암울한 먹구름이 되어 국민의 가슴을 짓눌렀던 것이다.

하여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제2의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하였다.

전 국민의 전두환 군사 정권의 실정과 광주 학살 만행을 규탄하고 정권 퇴진 운동에까지 돌입한 민주화 운동의 불길은 전두환 정권을 퇴진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여 6.29선언을 이끌어 내게 되었다.

2) 전남 민주회복 국민협의회(이하 '전민협' 이라 칭함)와 광양의 민주화 운동

1980년 5월 18일 광주 민중항쟁으로 짓밟힌 광주의 한을 풀기 위해 민주화의 요구에 대한 국민적 열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시기에 홍남순 변호사를 축으로 한 광주, 전남 저명인사들이 총 결집하여 1986년 3월 24일 '전민협'이 결성되었다.

'전민협'에서는 1987년 6월 16일 전민협(의장: 홍남순) 소속 조비오(신부), 명노근(전남대교수), 윤기석, 김성룡, 조아라, 신기하, 배종렬, 이기홍등 광주, 전남지역 지도층이 망라된 회원 128명이「현 시국을 보는 우리의 견해」라는 시국성명서에서 4.13조치의 즉각 철회와 민주개헌논의 재개, 6·10대회 구속자와 모든 양심수의 즉각 석방, 이한열군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전국민의 원성의 대상인 최루탄 사용 즉각 중지, 김대중의 사면·복권을 주장하였다. '이를 계기로 광양지역 민주화운동의 초석이 마련되었다.'

(주: 광주일보 1987.6.17 '시국선언문'에 광양출신 황준석, 박정규, 정병태 3인 게재)

(1)전민협 광양지부 결성

광양에서 민주화운동 단체가 처음 결성된 것은 '전민협' 광양지부였고 이를 주도한 사람들은 김병환(당시 52세, 광양읍), 박정규(당시 49세, 진월면), 정병태(당시 47세, 옥곡면) 세 사람이었다.

김병환은 5.18당시 광주에 거주하는 동안 항쟁을 목격하였고 박정규는 직접 시위에 가담도 했으며 정병태는 1976년 6월경 부천경찰서 권인숙 성고문 사건 '고발장'을 입수 광양전역에 비밀리에 배포하던 중 '86. 8. 15. 18:30경 옥룡면 동곡 버스정류장에서 새마을 지도자등 청년들로부터 테러를 당하기도 했던 사람으로 위의 두 사람과 더불어 민주화운동의 활동에 참여하여 '전



사진2-133 : 전민협 동계수련회 참가(1986년12월)

민협' 광양시지부 결성에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전민협' 과 광양 민주화 운동의 관계 설정은 1986년 11월 중순경 김병환을 통해 광주에는 '전민협'이 결성되었으며 다른 시·군지부도 결성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다.



사진2-134 : 김대중 선생과 함께 기념 촬영 (1986.12.19)

김병환, 박정규, 정병태 3인은 광양에도 '전민협' 지부를 결성하기로 합의하고 본부와 사전 협의를 끝냈다. '전민협' 본부에서는 1986년을 마무리하면서 동계 수련대회를 갖기로 일정을 잡아놓은 상태였다. 계획에 의해 12월 19일 아침 광주를 출발, 오후 5시경 충북 음성 수안보온천에 도착하여 밤늦게까지 수련회를 끝마쳤다. (참석인원, 본부와 산하 시·군지부 및 결성 준비 지구에서 48명, 광양은 결

성 준비지구로 박정규 정병태참석) (초빙연사 고영근목사)

12월 20일 12시 30분경 서울 마포구 김대중 (선생)택을 방문하여 점심 식사후 김대중으로부터 '군사 독재정권 퇴진과, 민주화의 앞날'이라는 시국담을 듣고 기념촬영을 한 다음 광주로 돌아 왔다(차내에서 본부로부터 광양지부 결성을 1987년 2월 15일로 결정했음).

지부 결성 준비 과정에서 특히 박정규, 정병태 두 사람은 '민주화운동'이라는 용어자체가 용납되지 않던 군사독재 정권 시절 시위문화가 전혀 낯설은 농촌 지역에서의 회원 확보가 사실상 어려웠던 상황에서 무려 2개월 동안 광양전역을 누빈 끝에 회원 김용지(성황), 임동욱(당시 46세, 광양읍) 등 20여 명을 확보, 지부결성의 틀을 마련했다.

지부결성 3일전인 2월 12일부터는 행사의 핵심인물이 될 두 사람에게 대한 집요한 미행과 감시가 따랐다. 13일 정병태를 감시한 윤모 정보과 형사는 광주까지 미행을 하였고 박정규는 광양읍 곳곳을 배회하며 피신하여 있었다. 15일 행사 장소를 천주교 성당(광양읍소재)으로 예약돼 있는 상태에서 14일 새벽 미리 성당에 잠입하여 하루를 보냈다. 광양경찰서에서는 두 사람을 체포하기 위하여 체포조를 만들어 첩보를 수집하던 중 성당내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오후 5시경 성당 안에 숨어있는 두 사람을 체포, 박정규는 경남 남해로(독재권력은 울산경찰서에 근무중인 박정규의 동생을 광양경찰서에 임시파견, 형을 회유하기 위하여) 정병태는 전북 남원으로 불법연행 격리시켰다.

이때 수시로 술을 먹어 정신을 혼미하게 하였으며 가는 곳마다 전화를 차단시키는 등 24시간 구금을 하여 다음날 행사를 방해, 지부 결성을 무산시킬려고 했지만... 15일 홍남순(전민협 의장)을 비롯한 다른 지역회원들이 참가하고 신순범(국회의원), 김진호(광양읍) 등이 합류하였다.

행사장이 천주교 성당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경찰은 전투경찰로 성당 정문을 미리 봉쇄하는 바람에 성당에서 100미터 거리에 있는 평화다방(광양읍 목성리 소재)으로 집결하여 결성식에서 박정규를 지부장, 정병태를 사무국장으로 선출한 후 결의문을 낭독하고, 행사를 끝낸 후 평화다방에서 광양경찰서로 행하는 시가지에서 “독재타도 전두환은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광양의 역사 이래 독재정치에 항거한 투쟁의 함성이 울려 퍼졌음).그리하여 ‘전민협’ 광양지부가 1987년 2월 15일 오전 11시 결성되었다 (주: ‘전민협’ 각 시·군지부 결성상황).

지부가 결성된 다음부터 회원들은 각 시·군지부 회원들과 같이 1주일에 1~2회 정도는 본부 사무실(홍남순 변호사 사무실)에 집결하여 군사정권 퇴진, 4·13 호헌철폐를 외치며 집회 및 시위에 참가했다. 특히 87년 3월 1일 3.1절 기념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오전 10시 본부에 집결하였다가 경찰이 사무실을 봉쇄하여 오후 5시까지 연금을 당했다. 오후 늦게 봉쇄된 본부 사무실 앞에서 학생, 시민등 시위대들과 전투 경찰이 시가전을 방불케 하는 최루탄과 화염병의 공방전이 벌어졌다.

3월 25일 오전 10시경 광주 남동 성당앞에서 시위도중 박정규, 정병태, 임동욱 세사람은 경찰의 해산명령을 거부하다 닭장차로 비아에 있는 전투경찰 중대본부에 연행되어 8시간 동안 감금되었다가 오후 6시 30분경 풀려나기도 했다. 그 즈음 황준석(63세, 광양읍)이 지부 공동의장으로 선출되어 6월 항쟁에 참여한다.

(2) 6·26 평화대행진과 광양

유사이래 전국 최대규모로 많은 국민이 시위에 가담하였다.

‘전민협’ 광양지부는 독자적인 시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6월 23일 집행부가 숙의한 결과, ‘전민협’ 광양지부의 주관하에 6·26평화대행진 행사를 치르기로 합의하고, 장소는 광양읍 천주교 성당앞으로 결정하고 준비



‘전민협’ 광양지부가 1987년 2월 15일 오전 11시 결성되었다.



사진2-135 : 『군사정권퇴진』 등을 외치며 항의 시위장면(1987.3.1)



당시 전체 국민의 타도 대상이 된 군사 정부는 정권을 사수하는데 최종 목표를 설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은 말할 것 없고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하여 인권을 유린하는 만행을 서슴지 않았다.

에 들어간다. 시위 준비과정에서 회원은 아니었지만 황국현(당시 65세, 광양읍), 서범원(당시 40세, 광양읍), 강용재(당시 37세, 광양읍) 등이 저마다의 역할을 맡아 합류하였고 다수의 시민이 참가했다. 87년 6월 26일 오후 6시 국민운동 본부의 지침에 따라 성당의 종소리를 신호로 자동차 경적을 울림과 동시에 애국가를 제창하였다. 이때 애국가 제창이 1절도 끝나기도 전 사복경찰 수 십명이 시위대의 입을 틀어막은 뒤 시위 주동자인 박정규, 정병태, 김병환, 신보주, 이경태등을 경찰서로 불법·연행하였다.

당시 전체 국민의 타도 대상이 된 군사 정부는 정권을 사수하는데 최종 목표를 설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은 말할 것 없고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하여 인권을 유린하는 만행을 서슴지 않았다.

연행된 사람들은 경찰서 청사내에서 항의농성에 들어갔다. ‘우리를 연행한 죄목을 대라’, ‘애국가를 부른 것이 죄가 되느냐’며 격렬히 항의하자 시위 주동자인 정병태를 경찰서 유치장에 감금시켰다. 정병태는 감금시키는 사복경찰을 끌고 같이 유치장에 들어가기도 했다.

6월 26일은 광양읍 5일 장날이었기 때문에 시위에 참여한 사람보다 구경꾼들이 더 많았으며 구경꾼들도 심정적으로는 모두 시위에 가담하고 있었던 것이다.

성당을 중심으로 주위는 사복경찰, 전투경찰, 광양군 공무원이 완전히 에워싸고 있어서 시위대의 모든 행동을 봉쇄하고 있었다.

그 날 산하 경찰서, 광양군 공무원은 총 비상 동원령을 발동하여 현장에 투입 시위 가담자로 생각되는 사람 중 안면이 있으면 공무원이 접근 회유, 협박하여 시위 참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였다.

그 날 시위에 참여한 사람 중 특이한 사람은 영세(營細)한 광고업을 운영하는 신보주(당시 34세, 광양읍 목성리)로 ‘우리는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쓴 현수막을 종업원과 함께 들고 시위현장에 나왔다가 연행되기도 했다.

1차 경찰서로 연행후 시위대의 세(勢)불리함을 감지한 강용재를 비롯한 광양읍 각 교회 청년들은 밤 8시에 다시 모여 횃불을 들고 격렬한 시위를 하다 밤 9시가 넘어 해산했다.

시위가 끝난 뒤 밤 9시 이후 경찰서 형사들이 시위주동자의 한 사람인 강용재를 극렬 시위자로 분류하여 자택을 급습, 그를 연행하여 당시 수사과장 박모 경감과 형사들이 곤봉 등으로 전신을 구타, 강용재가 실신을 하여 동산병원(광양읍 소재)에 입원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무자비한 폭력 행사는 일종의 극렬 분자에게 가하는 보복성 폭력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 사실을 접한 천주교 성당 수녀, 교인등 30여 명이 경찰서에 몰려와 연행자를 풀어 줄 것을 요구하며 농성을 하였고 이들은 28일 광양읍 성당에서 밤 9시부터 29일 아침 7시까지 폭력경찰 규탄 철야기도회를 열었다.

동아일보 87. 6. 29자 사회면에 ‘시위참가 식당주인 경찰서에 연행 폭행 광양서... 신부·신도등 100여 명 항의시위’ 제목으로 사실확인 보도하였다.

폭행을 지휘한 수사과장은 직위해제 되었으며 병원으로 강용재를 찾아가 백배 사죄를 했다.(주: 동아일보 87. 6. 29 기사)

6·26 평화대행진은 규모가 가장 컸다. 전국적으로 34개시, 4개군(전남 서부지역 2개군, 광양군, 경남 거창군)이 참여하였다. 참여한 4개군 중에서도 우리 광양군민이 군사독재 타도를 외치며 전국적인 시위에 참여한 것은 후세에 우리고장의 자부심이 될 것이다.

이후로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 광양지부가 결성되고 하부 조직으로 청년동지회가 결성되었으며 암울한 교육 현장에서 참 교육을 외치며 일어난 광양 교사협의회, 그리고 참담한 농촌현실을 보다못한 농민들의 절규 등이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시민운동으로 발전, 이들과 더불어 민주세력이 함께 하여 농촌 지역에서도 독재타도, 시위의 횃불이 점화되었다고 생각되어 열거코자 한다. 특히 성명서는 당시의 시대상황을 짐작케 하므로 굳이 소개하고자 한다.

(3) 민주 헌법 쟁취 국민운동 본부 광양군 지부결성

비록 6.29선언 후였지만 제6공화국의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군부독재가 종식되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국민운동본부의 활동은 계속되어 광양군에서도 지부가 결성되었다.

김동혁(당시 69세, 광양읍, 아호 : 서정)농민운동가, 김홍식(당시 45세, 광양읍)시민대표, 김병환, 박정규, 황준석, 김진호, 박양석(옥곡교회 목사)종교계대표등이 공동의장, 전교조 해직교사 박두규, 서범원, 김용지, 이돈완, 김상기(추산교회전도사) 등을 지도위원, 사무국장 정병태로 집행부를 구성하여 ‘독재타도, 민주헌법 쟁취’를 구호로 내걸고 87년 9월 15일 광양읍 소재 문화예식장에서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광양군 지부를 결성하였다.

결의를 다진 뒤 행사장을 나와 대형 태극기를 앞세워 광양읍 시가지 일원



6·26 평화대행진은 규모가 가장 컸다. 전국적으로 34개시, 4개군(전남 서부지역 2개군, 광양군, 경남 거창군)이 참여하였다. 참여한 4개군 중에서도 우리 광양군민이 군사독재 타도를 외치며 전국적인 시위에 참여한 것은 후세에 우리고장의 자부심이 될 것이다.



비록 6.29선언 후였지만 제6공화국의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군부독재가 종식되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국민운동본부의 활동은 계속되어 광양군에서도 지부가 결성되었다.

에서 평화시위를 벌였다. 이때 시민 다수가 참여하여 시위인원은 200여 명에 달했고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도 동조를 나타냄으로써 민주화운동이 시대의 대세였음을 확인해 주었다.

(4) 국민운동 광양'청년동지회' 결성

국민운동본부 광양군지부 결성과 더불어 정의감에 불타있던 광양지역 열혈 청년들이 87년 12월 7일 광양읍 소재 문화예식장에서 국민운동 광양 청년 동지회를 결성하고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

민족, 민주화 운동은 이 시대의 대세이다. 민선 민간 정부를 세우려는 현재의 선거투쟁도 국민 주권의 정당한 투쟁결과에 따른 민주화를 이룩하고, 나아가 민족의 자주적 결정에 의한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지려는 운동의 일환이다. 이러한 민족·민주화에 대한 열망으로 국민운동 광양군지부의 깃발아래 여러 계층의 젊은이들이 모여 반민족·반민주 군부독재의 종식을 위해 싸워 왔다. 그러면서 하나의 역사운동으로서 이루어가야 할 투쟁의 효율성과 지속성은 물론 지역적인 특수성을 살려나갈 길을 숙의한 끝에 국민운동의 물결 속에서 '청년동지회'를 결성하기로 하였다.

우리 '청년동지회'는 이 땅의 기층 민중을 억압하는 폭력 정권에서는 어느 때든지 정당하게 대항할 것이며, 민족의 주체성 확립을 위한 선도자로 나설 것이다. 민주정부 수립과 민중의 권리확보에 이어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각 부문별로 추진되는 민주개혁의 뜻을 한데 모아 대동 투쟁할 것이다. 백운산의 드높은 기상과 깨끗한 물줄기를 머금어 예로부터 애국열사를 배출한 인물의 고장 광양의 청년들을 이 땅의 주체로서 내세울 것이다. 광양의 청년 동지들이여! 우리 함께 움츠렸던 마음을 떨쳐버리고 민중의 생존권과 시민의 권리쟁취를 위해 결단하고 나서자. 정치적 이해를 떠나 이 시대 이 민족의 주체로서 모두 모두 손잡고 일어서자! 이땅의 젊은이들이여! 국민운동 광양 청년동지회의 깃발아래 하나로 뭉쳐 민족·민주화를 위해 힘차게 싸우자!

광양청년동지회 만세! 민족·민주만세!

1987년 12월 7일 민주쟁취 국민운동 광양지부 청년동지회

(주: 1정관, 민주쟁취운동 광양지부 청년동지회)

청년들은 12.12군사반란(쿠데타)을 일으킨 전두환 일당을 심판하겠다고 하며 광양읍 목성리 시계탑 사거리 부근 민주정의당 광양지구당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강용재, 신보주, 김재창(당시 31세, 광양읍), 신우환(당시 32세, 봉강면) 주은철(당시 29세, 광양읍) 등이 주도한 이날 시위는 1987년 12월 12일 오후 5시경에 시작되어 밤늦게까지 횃불을 들고 시위를 하였다. 성당 앞에서 불과 수십미터 거리에 있는 민주정의당 광양 지구당사 앞에서 100여 명의 시민 다수가 참여한 현장에서 시위대와 진압 경찰사이 몸싸움이 벌어진, 광양 지역에서 초유의 현상이 벌어졌다. 몸싸움 과정에서 김재창은 경찰에 붙들려 휘둘려진 방패, 군화발에 짓밟혀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수적우위에 밀린 시위대가 진압되고 김재창 등 7명이 경찰서에 연행되었으나 당일 5시간만에 전원 풀려났다.

청년들은 독재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한 광양의 유지 몇 사람을 ‘광양5적’으로 명명(名銘)하고 결사대를 만들어 민주정의당 광양지구당에 화염병을 투척하기도 했다.

(5)광양 교사협의회 창립

1987년 12월 12일 천주교 광양읍 성당에서 광양 교사협의회를 창립하였다. 교사들은 ‘창립 선언문’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결의를 다짐하였다.

우리는 오늘, 참다운 교육활동을 못했던 지난날의 부끄러움을 떨쳐버리고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을 향한 새로운 발걸음에 동참함을 역사와 민족 앞에 선언한다.

교육은 교육의 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의 뜻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우리 교육현실은 어떠하였던가? 부당한 권력의 지배를 합리화시키려는 관료 체제에 교육제도가 예속화되었고, 이기적 출세주의는 입시경쟁을 부채질하여 비(非)인간화로 치달았다. 그리하여 학생들은 참된 진리를 깨닫고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성숙한 인격자로 교육받지 못하고 자신들이 어떻게 길들여지는 지도 모른 채 인간성을 상실해 가고 있으며,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장래를 담보한 기대감 때문에 교육세와 교육비 부담에 시달리면서도 교육 개선에 대해 제대로 항변조차 못해왔다. 교사 역시 비민주적 교육 현상에 대하여 맹목적인 순응과 침묵만을 강요당해 왔으



강용재, 신보주, 김재창(당시 31세, 광양읍), 신우환(당시 32세, 봉강면) 주은철(당시 29세, 광양읍) 등이 주도한 이날 시위는 1987년 12월 12일 오후 5시경에 시작되어 밤늦게까지 횃불을 들고 시위를 하였다.

며, 일신의 안일과 영달을 꾀하려는 말단 관료적인 자세에 휩쓸리거나 그를 방관해 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중략— 이를 위해 ‘민주교육 추진 광양 교사협의회’를 창립하고, 교육을 둘러싼 제반 문제 해결과 교권의 확립을 위해 교육의 주체로서의 권리와 책무를 다하고자 한다.’

‘광양교협’은 ‘전교협’과 연대하여 말단 관료적인 복종의 자세를 버리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학생 교육을 정상화시키며, 학부모의 올바른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여 이 시대 이 땅의 참 교육을 이룩해 갈 것이다. 그리하여 과거 개인적인 교사, 교육, 운동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교사를 대중적으로 조직하여 꾸준한 운동으로 지속하고자 한다. 700여 광양 교사여, 깨어 단결하자! 산업화의 물결에 휩쓸리고 있는 인물과 역사의 고장 광양에서 참된 교육을 실천해 가자. 우리 교사의 참 삶이 각자 교육활동의 올바른 구현에 있다면 우리 학교와 이 지역의 교육 문제를 남의 손에 맡기는 방관자에서 벗어나 학교 교육의 민주화에 동참하자! 뜨거운 가슴으로 민족과 역사 앞에 떳떳한 교육·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을 실천하며 교권을 확보하자!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 만세! 광양 교협 만세!

1987. 12. 12 민주교육 추진 광양교사 협의회(주: 광양 교사협의회 창립대회)

이들은 억압과 탄압, 회유, 협박을 뿌리치고 1989년 5월 20일 오후 2시 아카데미 유치원에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광양지회를 결성하였다. 노동조합 결성을 위한 투쟁을 하다가 박두규(당시 33세, 광양읍, 광양고등학교), 전효준(당시 29세, 순천서면, 광양고등학교), 강분희(당시 27세, 광주, 골약중학교) 3명의 교사가 강제 퇴직을 당했다. 이들의 투쟁과 굳은 신념이 오늘날 합법적인 교직원노동조합이 탄생하게 된 원동력이 되었다.

(주: 광양교협 임시회원 대회)

(6) 농민회결성 준비위원회

1988년 8월에 광양군 농민회결성 준비위원회가 발족되었다.

농민회결성 준비위원장에 김기형(당시 54세, 진월면)을 추대, 농민회지부를 결성하려고 많은 애를 썼지만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어서 지부결성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말았다. 그러나 준비위원회 성격을 띠고 나름대로



이들은 억압과 탄압, 회유, 협박을 뿌리치고 1989년 5월 20일 오후 2시 아카데미 유치원에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광양지회를 결성하였다.

농민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운동으로 인해 전국에 광양농민들의 기개를 보여주기도 했다.

‘쌀값 보장, 전량수매 UR거부를 촉구하며’

사방을 두루두루 아무리 살펴도 농민들의 생존은 망망대해 조그마한 나룻배 신세다. 우루과이라운드의 미친 파도가 밀려오더니 이제는 수매량 절대감소의 파도가 몰아쳐 오고 생산비에 대한 생각은 없이 한자리니 두자리니 자릿수 놀음의 거센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 그러나 700만 농민의 의롭고도 용감한 기상은 어떤 파도와도 의연이 맞서 싸우고 있다. UR거부 투쟁에서 쌀 생산비 보장, 전량수매 쟁취의 함성이 방방곡곡 메아리 친다. 전국 농어민 후계자 협의회 이경해 회장의 UR반대 할복은 농촌현실의 절박함과 한국 농민의 의로운 기상을 잘 보여준다. 그럼에도 계속되는 농촌현실을 외면하는 작태에 우리 광양지역 농민 형제들은 자신을 불사르는 심정으로 피땀어린 쌀가마에 불을 지르며 이는 농민분노의 최후 경고임을 밝히고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이하생략-

1990. 11. 11 광양지역 농민일동

집회를 마친 농민들은 광양읍 성당 마당에서 벼 24가마니를 불태웠다. 다음 날 12일 각 신문에 성난 농민들이 벼 가마니에 불을 질렀다' 고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주: 1쌀값보장 저량수매 UR거부를촉구하며! 2광주일보 1990. 11. 12외)

(7) 각 대학에서 독재정권 타도를 외치며 민주화운동의 대열에 앞장섰던 광양출신 대학생들의 검증절차를 거쳐 입수한 정보에 의거 인적사항을 열거해 둔다.

체포구속 수사과정에서 고문, 폭행 등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 투사이고 우리 고장의 참된 일꾼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을 민주화 운동이라 하면 괴리감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당시 학생들의 부르짖음을 권력자들은 반국가단체는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로 몰아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였던 것이다.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건 89고합 612

가: 국가보안법 위반

나: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라: 일반교통방해

마: 집회 및 시위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 : 신 상환 학생 (아주대학 총학생회장, 1968년 6월 11생)

주 거 : 전남 광양군 다압면 고사리 661의1

검 사 : 정 기 용

변호인 변호사 : 천 정 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처한다.

(수원, 안양, 대전교도소 수감, 91년 8월 4일 석방)

현재, 인도 산티게티닌대학 학업중(학자로서 후학들 지도 · 육성)

(주: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 이름 : 서 동 용 (1964년생)

출신지 : 황길리 53번지 학번 : 1983년 연세대학교

구속사유 : 1. 1985년 11월 18일 서울 가락동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

접거 농성

2. 1986년 4월 8일 경기도 부천시재 공단지역내 민중생존

권 쟁취, 노동 3권보장 등

죄명 : 특수공무집행방해, 각종 시위 및 집회에 관한 법률 위반

형량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두차례 구속 1차 기소유예 2차 집행유예)

현재 사법연수원 연수중(2002. 12. 31현재)

- 이름 : 박 형 배 (1965년생)

출신지 : 옥곡면 신금리 1329-9번지 학번 : 1985년 고려대학교

구속사유 : 불온서적 및 문서소지 죄명 : 국가보안법 위반

형량 : 징역1년, 집행유예 3년

현재 광양 참여연대 정책실장, 학원운영

- 이름 : 이점수(1967년생)
출신지 : 광영동 83번지 학번 : 1986년 서울대학교
구속사유 : 1. 건국대학교 사건
 2. 1987년 12월 구로구청 부정선거규탄 폭력사건
죄명 : 집회시위 및 폭력에 관한 법률위반
형량 : 징역 3년형, 집행유예 5년(두차례 구속 1차 기소유예 2차 집행유예)
현재 컴퓨터 프로그래머

- 이름 : 김명원(1965년생)
출신지 : 다압면 고사리 940번지 학번 : 1984년 연세대학교
구속사유 : 1985년 8월 15일 미국 대사관 점거 사건
죄명 : 국가보안법 위반
형량 : 징역1년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2년
현재 대학강사


• 맺는말

87년을 전후로 광양의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어언 16년의 세월이 흘렀다. 광양의 시지에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이 게재될 것이라는 생각을 필자는 생각도 하지 못했고 본인이 필자가 되리라고는 더욱 상상하지 못했다. 부족한 식견과 아득한 과거를 더듬어 글을 쓰다보니 부끄러운 마음 금할 길 없다. 특히 암울하고 음험했던 그 시절이라 기록이나 자료들을 챙기지 못했던 것에 대해 후회가 막급하다.

고난의 세월을 함께 하였으면서도 그 장한 이름들을 기억해내지 못하고 일일이 기록할 수 없는 사정을 동지들은 이해해 주길 바란다.

다만 영원한 비밀이란 없는 법. 필자의 기록을 바탕으로 이 책을 보거나 여기에 실명으로 적혀진 사람들이 구전과 구전으로 관련된 자료가 있어 이후 편찬될 시지에서는 보다 완벽한 집필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한다.

이번 집필은 1980년대부터 1990년을 기점으로 일어났던 민주화운동 부분만을 기록하였다. 이후에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역사의 편린(片鱗)들은 후대의 필진들에게 넘기겠다.

 집필 : (전)전민련 광양군지부 사무국장 정병태